

第278回國會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8年9月8日(月)  
場 所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주요업무보고
  - 가. 동북아역사재단
  - 나. 한국교직원공제회
  - 다. 한국학술진흥재단
  - 라. 한국학중앙연구원
  - 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審査된案件

- 1. 주요업무보고 ..... 1
  - 가. 동북아역사재단
  - 나. 한국교직원공제회
  - 다. 한국학술진흥재단
  - 라. 한국학중앙연구원
  - 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0시08분 개의)

(10시09분)

○위원장 김부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현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보고

- 가. 동북아역사재단
- 나. 한국교직원공제회
- 다. 한국학술진흥재단
- 라. 한국학중앙연구원
- 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위원장 김부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업무보고를 할 대상 기관은 모두 6개 기관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각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15분 범위 내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첫 회의임을 감안하여 오늘 참석하신 6개 기관장님들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덕 이사장님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종서 이사장님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 중이어서 우제창 사무총장겸직무대행이 나오셨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정배 원장님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정길 회장이십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나오셨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동북아역사재단의 김용덕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예, 말씀하세요.

○**이상민 위원** 우리 간사들끼리 양해를 했는데, 업무보고 끝나고 질의를 할 때에, 지난번에 서로 대화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주질의 하고 보충질의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필요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보충질의나 재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간사님들은 대체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특별히 중언부언이 아닌 다음에야 위원들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용되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간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세 분 간사님께서 그런 합의가 있으셨다면 그런 취지를 존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나오신 6개 기관의 각 기관장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루 종일 출석을 하시기 때문에 특정기관에 편향되거나 집중된 질문을 해서 다른 분들이 참석하신 데 대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안 발생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아역사재단의 김용덕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장님과 교육과학기술위원님들께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직 설립된 지 2년이 다 되지 않아서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을 아껴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기다리겠습니다.

다.

보고는 크게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현안에 관한 보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설립 목적입니다.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역사 갈등의 문제로 파악해서 이 역사 갈등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소해 가는 데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외교활동의 수행을 통한 역사주권, 다시 말하자면 각 나라가 그 나름대로의 역사주권을 갖고 있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에서의 역사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동북아 역사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한·중·일 세 나라가 모두 같이 공유하게 될 때 갈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연구·정책 개발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저희 설립 목적과 그 활동의 대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설립 경과와 주요 기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및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이사회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 주체로서는 이사장과 이사를 보필하고 있는 사무총장이 있고 그 밑에 독도연구소 그리고 5개의 실이 있습니다. 운영기획실, 전략기획실, 제1연구실이 한일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제2연구실이 한중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홍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기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자료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국제표기명칭대사와 법률자문관이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파견 나와서 저희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원은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은 70명입니다. 물론 독도연구소가 발족을 해서 9월 중에 12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11명의 파견공무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2억 8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사업비가 약 3분의 2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씩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역사연구 및 조사사업에 37억 5700만 원을 배정해 놓고 있고, 영토·영해 관련 영유권 공고화 사업, 학술서적 및 자료발간 사업,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은 저희의 입장과 연구결과를 국내외로 알리고 또 같이 연구해서 국제적인 동조를 얻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24억 3900만 원입니다. 그 외 교육·홍보 사업, 전략기획사업이 있습니다. 전략기획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할 대사업들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서 주요 업무는 다음에 나오는 주요 실적과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체로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 실적, 다시 말하면 2006년 9월 22일에 발족해서 현재까지의 주요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입니다.

독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연구·조사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가 부족하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본은 계속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독도연구를 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서 국내외 학술회의를 많이 개최하고 또 저희가 직접개최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하는 국제회의들이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도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우리의 영토와 주권'이라고 하는 국제회의와 '국제사법기구의 분쟁 해결 동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모두 외국에서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해서 한 국제회의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독도 관련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도아카데미라고 해서 대학생들 한 기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씩 대학별로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 마지막 날에는 독도탐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명이 수료했고, 특히 금년 여름에는 재외교포 대학생 100여 명을 불러서 충분한 교육효과를 봤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내외 홍보 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독도역사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문, 일문, 중문 등 외국어 홈페이지가 되어 있

습니다만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독도에 관한 동영상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만들어서 국내외학교 및 기관 단체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끊임없이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영어·일어판을 같이 내고 있고, 특히 지난달에는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외신기자들에게 독도탐방을 추천해서 여기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24명의 외신기자들이 독도를 보고 와서 관련 기사를 낸 바가 있습니다.

동해 표기의 국제적 확산도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과는 2007년 5월에 국제수로기구에서,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기구입니다만, 동해 표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해 단독 표기를 막고 동해를 병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동해 표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으로 어려운 일인 만큼 저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재단 업무 중 하나인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중에 제일 큰 성과라고 한다면, 물론 저희 재단만의 성과는 아닙니다만 2007년 7월에서 11월에 걸쳐 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그리고 캐나다 의회에서, 네덜란드 의회에서, 뉴질랜드 의회에서 그리고 EU 의회에서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 연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위해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주관으로 방송용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자에 의뢰해서 영화제에 출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만 결국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것이 단기간에 완전히 끝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든가 북경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와 저희가 공동학술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한쪽으로는 국제적으로 이 입장을, 저희의 입장이라

기보다 옳은 입장이겠지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우수한 대학들에 공동 연구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몽골 등 외국 학계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8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남북한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동북공정과 고구려'라고 하는 학술회의를 허심탄회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협력 강화 사업으로 저희가 1년 사업 중에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은 역사 NGO 세계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NGO 단체 중에 역사 관련 NGO 단체들을 세계적으로 모이게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주제로 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10월 8일에서 12일까지 서울시내 도심지에서 또 올림픽파크텔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북아 역사 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미래를 여는 역사'라고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중국·일본의 역사학자 및 역사교사들이 모여서 합의를 봐서 낸 책입니다. 이것을 영문판을 활용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또 국제회의도 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중·일 간 역사 공동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선례를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에서 찾기 위해서 독일·프랑스 간에 공동으로 만든 역사교과서, 여기에는 역사교과서 III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것이 1945년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번역해서 오늘 바로 출간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역시 동아시아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이는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포럼을 구성을 해서 이 포럼에서 저희 재단이 원하는 주제의 큰 국제회의를 1년에 한 번 대규모로 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동아시아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에서 201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개설이 됩니다. 이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부 요청을 받아서, 또 저희 재단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동아시아사를 담당할 교사들을 위한 직무연수 교육을 저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 이것을 방학 때마다 금년 겨울부터는 전국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출판, 홍보에 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현재 7대 역사 현안이라고 흔히 부르는 일곱 가지의 주제에 관해서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각급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영어·중국어·일어판이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입니다.

이 현안은 크게 독도 문제와 한일 간의 문제, 한중 간의 문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 문제가 현재 국민적인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독도에 관한 그들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 가는 것이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사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려고 있는 것은 역시 일본이 지금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조어도, 그리고 러시아와 문제가 되고 있는 남쿠릴 열도 이런 것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의 분쟁지역화 이것은 아마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나올 것이고 내년 초에 여기에 대한 해설서가 나오게 됩니다. 또 내년 3~4월에는 이른바 가장 보수우익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새역모라고 하는 데에서 책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으로서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독도연구소를 저희가 발족시켰습니다. 독도연구소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제3실에서 독도·동해 관계 연구를 하던 것을 강화·확대해서 발족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독도 관계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고 동시에 국내 독도 관계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여기에서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현안은 역시 동북공정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결과물을 아직 발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지방으로 퍼져가고 있어서 동북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동북공정의 후속 사업을 소규모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발해 문제, 그리고 백두산에 대한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문제,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린 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청사'라고 하는 중국의 정사를 이번 중국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해서 역사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학술적인 연구를 강화시켜 가고 동시에 중국 사회과학원, 중심 기관입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 가면서 공동 역사 인식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연계망을 구축을 해서 역사 왜곡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 현안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본 내각이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누가 뽑힐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분위기는 대체로 지금 분위기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자민당에서 내년 총선에서 일단 승리를 해야 정권의 안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2010년 8월 29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에 대비해서 일본 내에 독특한 분위기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로서도 여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응 방향은 크게 전략 틀 안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것을 저희 재단이 민간 차원의 공동 국제활동을 지속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김용덕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종서 이사장님 나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8대 첫 정기국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받아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은 물론 나아가 교육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이어 1971년 대한교원공제회로 창립되었습니다.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2004년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직은 의결기구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79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심의, 결산보고서 등을 의결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이사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임원 선출,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사업운영 세부계획 등을 의결합니다.

집행부서는 이사장과 3명의 이사 아래 본부 10부 26팀, 16개 시도지부에 총 33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표로 같음하겠습니다.

공제회 회원은 현재 재직 중인 일반회원과 퇴직 교원인 특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가입 자격은 일반회원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 학교 교직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국립대학병원의 임직원, 학교 형태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교직원 그리고 교직원공제회의 임직원이며 특별회원의 경우 일반회원으로 정년·명예·상병 퇴직자 또는 임기만료 퇴직자, 일반회원으로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한 자로 만 50세에 달한 자입니다.

2008년 7월 31일 현재 가입자는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57만 625명으로 가입 대상자의 88.1%가 가입하고 있으며 여기에 퇴직자인 퇴직생활급여

가입자 2만 9577명을 합하면 60여만 명이 가입중이고 중복가입자를 포함하면 총 76만 5340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제 제도로는 저축 제도, 보험 제도, 대여 제도, 복리후생 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제 제도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본 회의 기본 제도로써 교직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불입한 원금에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붙여 퇴직 시에 지급하는 장기저축 상품으로 현재 급여율은 연 5.75%입니다. 30년 기준으로 이것은 시중 은행의 세전 단리로 12.58%에 해당하는 이율이 되겠습니다.

목돈급여는 현직 교직원의 목돈을 맡아 운용해 드리는 신탁상품으로 현재 급여율은 연 6.5%가 되겠습니다.

퇴직생활급여는 본 회 회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교직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한 신탁상품으로 현재 급여율은 6.5%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급여는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한 교육가족의 생명보험 제도로써 시중 보험상품과 유사하나 보험료가 15~20% 정도 저렴합니다.

수납 및 지급 총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월 말까지 각 급여 제도를 통하여 장기저축급여 7647억 원을 포함해서 1조 3445억 원을 수납하였고 연말까지 2조 1452억 원을 수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금은 1조 1221억 원을 지급하였고 연말까지 1조 9661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회원 대여금입니다.

생활자금 대여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교직원이 필요로 하는 생활자금을 연 6.75%의 이율로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또는 자녀 결혼자금을 위한 저리의—시도교육청에서 이자의 반을 지급하게 됩니다—교직원복지 대여가 있으며 보건의료자금 또는 재해복구자금의 경우 무이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출 실적은 7월 말 현재 생활자금 대여 2조 4587억 원을 비롯 총 2조 4820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복리후생 제도로써 부조금 지급으로 결혼기념품, 퇴직기념품, 출산보조금, 유족·상병급여금,

주택재해부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영 숙박시설로는 서울교육문화회관, 경주교육문화회관, 설악교육문화회관, 지리산 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콘도 52개소, 의료기관 67개소, 장례식장 10개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회원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료 법률상담, 무료 예식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총자산 14조 7334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519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유가증권이 6조 456억 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중에서도 주식은 2조 3372억 원으로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회원대여금 32.8%, 개발사업 투자 18.9%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수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7월 말 현재 유가증권 매매익 1040억 원 등 총 4727억 원의 수익을 실현하였고 356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4371억 원의 경상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경상이익 중 회원에게 지급할 원리금 5003억 원을 적립하면 63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주식 시황이 좋지 않아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작년 말 현재 회원들에게 지급할 지급준비율이 100.2%였습니다만 지금은 99.4%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13쪽 개발사업을 보고드리면 신공항하이웨이 등 12개 SOC사업에 9723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진로 및 하이트맥주 M&A 등 6개 사업에 1조 8068억 원을 투자하여 총 2조 779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주요 신규 투자사업은 여의도 통일교부지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5228억 원의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중 32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부터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수익극대화, 인재경영, 윤리경영, 회원만족경영의 4대 경영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자산배분 시스템 구축, 투자결정 시스템화, 신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경영을 기치로 사람이 최고의 자원인 사회에서 직원의 채용부터 인력운용까지

인사관리 시스템의 합리적 개선과 새로운 인재상 확립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윤리경영을 위하여 경영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부패·비리 방지를 위하여 내부고발을 보호·보상하고 징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상에 공제회 관련 비리 문제가 보도되고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도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다시는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의식을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공제회의 존립 기반인 회원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 위한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대 회원 접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회원 CS팀 설치 운영, 회원 서비스 응대표준안 수립, 해피콜 시스템 운영을 추진하고 회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회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생애 단계별 필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회원만족경영 방안 수립을 위해서 회원서비스 혁신팀을 3월 1일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방안 수립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출자회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대교개발주식회사·교원나라제주호텔이 있고, 금융회사로서 교원나라자동차보험·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교원나라벤처투자가 있습니다.

SOC사업으로 인천 천마터널을 운영하는 천마개발이 있고 여주에 있는 소피아그린 CC를 운영하는 교원나라레저개발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드에이지가 있습니다.

이상 8개 출자회사에 11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이종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술진흥재단의 이사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우제창 사무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학술진흥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하고 있는 우제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장님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학술진흥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 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발전전략, 주요 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의 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술활동 지원 및 육성을 통해 학술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198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기능 및 연혁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재단의 조직은 현재 8단 1센터 1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제 정원은 상근임원 2명을 포함하여 14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2008년도 예산은 총 1조 425억 원이며,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별 예산편성은 3쪽과 4쪽을 참조해 주시면서 뒤에도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비전 및 발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식한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 세계 일류 학술진흥기관이라는 비전을 설립하고 학술진흥 및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및 연구자의 연구력 증진, 고객 중심의 연구지원 서비스 구현, 경영의 책임 및 효율성 제고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는 2008년도 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만 7쪽부터 자세히 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쪽의 주요 업무 및 추진현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재단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는 거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재단의 출연금사업입니다.

재단의 고유 출연금사업은 학술연구지원을 안

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한 학술지 평가사업이 있으며 그 외에도 국제학술교류사업, 학술연구지원정책 및 성과분석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쪽의 장학지원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8년도에는 총 예산 815억으로 수혜 대상은 약 2만 670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학사업으로는 미래한국 100년 인문장학금사업입니다.

미래한국 100년 인문사업은 인문학 전공자에게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으로 학문탐구를 장려하여 인문학의 학문적 기반을 유지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여 명 정도의 장학금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1300명, 2008년도에는 1700명이 조금 넘는 인원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학술연구조성사업입니다.

학술연구조성사업은 우수기초연구, 학술기반구축, 특정목적사업, 국제교류사업 군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조성사업은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우수과제를 지원하고, 대학 및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의 성과를 제고하고, 전 학문 분야에 걸친 지원을 통하여 학문 간 균형발전과 특정학문의 보호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학 및 연구자에 대한 인적·물적 연구인프라 구축 지원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학문 육성을 통하여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 및 국가 간 교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13쪽의 세부사업별 예산액 및 지원 실적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중요 사업으로 두뇌한국21지원사업입니다.

BK21사업은 현재 국내 73개 대학, 567개 사업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고급 연구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하여 국제경

쟁력이 있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다음은 누리사업입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은 16쪽부터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리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산업 연계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 그 결과에 지방대 특성화 분야의 교육여건 개선과,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7쪽에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런 가시적인 사업을 현재 이끌어낸 사업입니다.

재단은 2006년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 관리 및 기술이전 역량을 강화하여 대학 활동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커넥트코리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커넥트코리아는 외국의 TLO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크니컬 라이선스 오피서를 통하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값을 받고 이전하는 그런 오피서를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하나의 사업은 공과대학 내의 여성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과학생들의 성인지 관련 인식을 확산하고 여성 친화적 공학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 10억에 2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의 실적은 2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연구지원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통합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학술연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선진형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와 지향점이 있다는 데 재단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존경하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통합이 국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학계의 여러 인사와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학술진흥재단의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

향후에도 재단은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분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우제창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정배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김부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는 연구원이 2008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 문화의 심층적 연구와 교육을 통한 한국학 진흥이라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2008년 9월 현재 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187명의 교직원들이 연간 187억여 원의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우리 연구원에 위임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 기반으로서의 한국학을 확립하기 위해 1978년 본원이 설립된 이후 전국 구비문학 연구조사 등 많은 한국학 기초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2008년 9월 현재 부설 연구회에서 자체 과제 40개, 수탁과제 15개 등 총 5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 문화에 관한 인문사회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고, 연구소별로 특화된 주제를 기초연구 및 중점연구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으며, 엄격한 외부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위시하여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이끌어 갈 아시아적 가치를 제시하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인문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5년부터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을 창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열린 제4회 포럼에서는 환경과 생태와의 평화 등을 주제로 13개국, 47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을 해서 진지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자체 연구사업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러 기관의 수탁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그리고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등 국가적 규모의 과제들을 우리 연구원의 전문적인 연구와 편찬 능력 그리고 국내외 한국학 연구역량의 결집을 통해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성과를 책으로 출판하거나 학술정보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국내 연구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학대학원에서는 한국 인문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한국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급 학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980년 대학원 개설 이후 석사 524명, 박사 260명을 배출하였고, 2008년 9월 현재 세계 16개국에서 온 외국 학생 87명을 포함해서 200여 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식 한문 교육과정인 청계서당을 운영하여 한국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서당은 1997년 개설 이후 기초과정 231명, 연수과정 205명 등 총 436명이 수료했고 2008년 9월 현재 총 96명이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대학원은 국내외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대학으로서 학생들은 한국학 원전 자료 해독 능력을 기르고, 전공이론의 심화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과목을 공부하며, 한국 전통의 현대화와 미래화를 지향하는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해외 한국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학 자료의 집적과 제공을 통해 국내외 한국학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옛 왕실도서인 장서각 소장 22만 점의 고도서와 100여만 점의 마이크로필름 및 34만여 점의 근·현대 각종 도서 수집, 고문헌 자료는 한국학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꾸준히 고전자료를 수집 정리해 오면서 귀중한 자료들을 발굴해서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지난 8월 28일에 동의보감이 보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서 현재

국보 1종, 보물 17종 등 총 18종을 보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수집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고서, 고문서 자료들은 마이크로필름 혹은 영인본으로 제작해서 국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래 제작한 마이크로필름은 총 100여만 점에 달합니다.

또한 한국학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식정보시대의 한국학을 선도하고자 한국학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텍스트 자료와 원문 화상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기초자료 수집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학기초자료사업은 1993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전국 22개 국학기관과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국학의 고전자료들이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보존되어 한국학 교육, 연구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써 국가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국학 및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각국 대학원을 통한 해외 한국학자의 양성과 더불어 해외한국학지원사업과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해외에서 권역별로 한국학 거점을 확보하여 한국학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외국 교과서의 오류를 시정하는 각종 활동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6개의 중핵대학과 4개의 예비중핵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3~4개의 신규 중핵대학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해외 명문대학들의 관심이 대단해서 금년도 사업에는 모두 25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 세계 교과서에 실린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서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교과서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서 한국 문화 연수를 실시하거나 외국 교과서 출판기관에

직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해당 국의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요르단 등 6개 나라의 전문가와 교수들을 초청하였고 향후 프랑스, 태국 등의 교과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초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는 각국 교과서와 매체에 나타나는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및 기획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실리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 국가적 이미지를 바로잡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원에서는 한국학의 지식 정보화를 통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한국학 학술정보화 등의 사업을 통해 한국학 및 한국문화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각 지방 문화자료를 집대성하고 디지털화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온라인에 제공하고 지방문화의 지식 정보화 및 산업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히 21c형 동국여지승람 편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3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 청주 강릉 등 7개 지역을 완료했고 현재 공주 구미 등 18개 지역에 대한 편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개정·증보 및 한국학 자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한국학 지식의 공유기반 확대 및 대중적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현안사항인 신장서각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왕실 도서관인 장서각의 왕실문화와 기증·기탁고문서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운 장서각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서각 자료 중에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료들과 국가문화재급의 자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도서관 수준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전문적인 보존관리시설을 갖추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신장서각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1만㎡에 사업비는 총 261억 200만 원으로 2010년 건립 완료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성되는 단계에 있고 오는

12월에 건립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2009년도 예산에 건축비가 순조롭게 반영되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한국학 진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연구와 교육을 내실화하고 한국학 자료의 집적과 제공, 한국학의 지식 정보화, 국내외 한국 문화의 소통 체계를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 추진사업 요약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 일반 및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의 발전과 한국학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 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김정배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서강대학교 손병두 총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장님과 여러 교과위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하여 우리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연혁은 1982년 4월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1984년 4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 공포 하였습니다.

금년 4월 8일에 제가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7월 26일에는 제8대 박종렬 사무총장이 취임 하였습니다.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3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대학지원본부와 부설기관으로서 고등교육연구소와 고등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총회는 4년제 대학교 198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대학교 172개교, 교육대학교 11개교, 산업대학교 14개교, 방송대 1개교입니다. 이 중에 사립대학교는 80%인 156개입니다.

저희 이사회는 회장 한 사람, 부회장 3인, 이사 20명, 감사 2명해서 26명입니다. 사무처는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해서 정원 50명에서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특별사업회계, 국고사업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회원대학의 회비로 충당됩니다. 2007년도에 34억 원에서 2008년도에는 3억 2000억 원이 증가한 3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대교협 자체 사업 수입으로 2007년도 15억 원에서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008년에는 18억 원이 됩니다.

국고사업회계는 국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2007년도에 47억 원에서 2008년도에는 117억 원이 증가한 165억 원입니다. 117억 원이 증가한 것은 금년부터 대학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108억 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일반회계, 특별사업회계, 국고사업회계 합쳐서 2008년에는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대학경영지원 등 사업비와 기관관리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별사업회계는 주로 연수사업비와 발간지원사업비, 용역사업비 등으로 지출됩니다.

국고사업회계는 대학입학사정관제를 포함한 입학관련 업무지원 예산 증가로 입학에 관련된 것이 지출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이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간 협의·조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현안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3개의 상설위원회와 7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의 상설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대학

운리위원회, 대학평가인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7개의 특별위원회는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대학재정대책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사학법대책위원회, 대학평가대책위원회, 국립대학법인화대책위원회, 국제화대책위원회 등입니다.

위원회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명칭만 보시더라도 아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3쪽에 가장 대교협 의 주요현안인 대학재정대책위원회에서는 주로 고등교육재정확충방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에 대한 것, 대학등록금 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고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은 대학이나 탈락한 대학에 서로 문제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확충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학법대책위원회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폐 또는 대체입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정책연구 및 자료개발 업무입니다.

정책연구원은 현재 대학생 해외인턴십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학자율화 정착 기반 조성 고등교육 관련 법규 개정 연구, 대학재정 확충 및 활용 방안 연구, 입학사정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탐색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료발간사업은 고등교육정책 문고시리즈라든지 대학교육지 발간이라든지 또 대학교육여건조사와 DB 구축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교수와 직원 연수 업무입니다.

1995년부터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0여명의 대학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별, 직급별, 직능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자율화와 학사운영 지원에 대한 업무입니다.

대학 입학 자율화 지원업무로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입학관리 지원 및 상담교사단 운영, 대학입학관리의 정보화, 대학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심의등인데 특히 그동안 교과부에서 하던 입시업무를 금년부터 이관 받아서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지난 8월 20일 발표하였습니다.

대학 학사운영 지원업무는 대학과목선 이수제도를 운영하고 대학교원 임면보고 및 포상 지원,

대학교수 국내교류, 대학교원초빙정보센터 운영,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구성은 대학총장, 시도 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간 협의, 대학-고교-학부모 의견 수렴, 기타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 대학입학기본사항부터 심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밑에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위원회를 보완해서 대학입학처장,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대표,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대입 문제를 논의·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교-대학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운영함으로써 대학진학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학관리 정보화를 위해서 각종 자료 발간·배포하고 입학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학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학사정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 이념·발전전략,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면적인 선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부터 대학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폭 늘려서 모두 40개 대학에 12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평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평가 업무는 교육·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 평가대상 학문 분야는 경제학, 물리학, 한의학입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 산업 분야 70개 대학에 대해서 전문 직무역량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육과 산업계 요구 간의 질적 불일

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정책 세미나는 주로 고등교육의 정보 교류와 또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토론 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대교협 차원에서 각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력검증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위와 학력의 진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대교협에서 학력검증을 대행해 줌으로써 공인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6830건을 접수해서 61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대교협은 대학생 자원봉사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회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2600여 개의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12만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많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대교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확충 문제, 사학법 문제, 로스쿨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가 6건인데 즉시 할 수 있는 완료된 건수가 2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추진하여야 될 것은 4건으로서 현재 입학사정관 제도라든지 대교협 대학평가 문제 또 고등교육평가 인정기관과 대교협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견 또 대학자율화에 대한 실천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44쪽부터 46쪽까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앞으로 또 질문시간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손 회장님 보고 마치기 전에요, 37쪽에 있는 금년 여름에 개최된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있었던 자료 및 발표자의 주제문들 다 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위원장 김부겸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을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다음은 보고순서 마지막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김정길 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배화여대 학장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김정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취임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저희 협의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30여 년간 약 40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산업인력의 중심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재적생 및 교직원을 포함한 500만 전문대학인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85.2%의 취업률이 증명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인력 중 전문대학이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 고등교육기관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동안 우리 전문대학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구습적 관행과 제도에 묶여 전혀 발전적 지원이 없는 차등대우를 받음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최하의 홀대를 받아 왔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삶의 의욕으로 변신하려는 소외된 학생들마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음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및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정부가 직업교육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체제와 직업교육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교육의 기능적 측면에서 4년제 일반대학은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전문대학은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두 트랙의 체제를 갖추도록 해서 제도의 보완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직투입되는 전문대학 출신 인력이 그 중추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능력 중심 사회 구현과 함께 가정적·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 이들이 인생에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으며 꿈과 희망을 갖고 성실함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저희 전문대 학장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의 선진화와 산업인력 양성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전문대학 현황과 협의회 현황을 소개해 드리고, 주요사업 및 현안과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해 올리면, 1964년 산업화 태동기에 고등전문학교로 출발해서 70년대 전문학교를 거쳐 1979년 오늘날의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어 고등교육의 한 축을 맡아 오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 내용에서 1979년 전문대학 개편 이후 제도의 보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교수의 자격기준·보수가 단일화되었고 교육목적이 바뀌었으며 학사학위 과정을 지난해 입법화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는 약 30여 년간 400만의 산업인력을 배출하였고, 고등교육기관에서 약 43%의 대학 입학·졸업 인력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현장지향 프로그램 및 산학협력을 통해 매년 85.2%의 취업률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협의회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입시관리 업무는 대학입시 자율화에 따라서 전문대학의 입시 업무가 본 협의회로 이관되어졌습니다. 그 첫 단계로 2010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서 8월말에 공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험생 및 진학교사·학부모들에게 입학정보서비스를 위해서 책자 발간 및 입학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은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국제감각과 능력을 갖추게 하여 국내외 취업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동 사업은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도 국고 지원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간 600명

을 해외로 파견시키고 국고지원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근로장학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해서 재학 중 전공 관련 근로경험을 축적케 하는 사업입니다. 80억의 사업비로 약 7000여 명에게 수혜가 되며, 전공산업체 근로비율을 높여서 사업의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체 교원 연수 사업은 교원이 산업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교육을 받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교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의 예산으로 65명을 연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대학 학과평가는 금년도 사회복지·음악·체육과를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등급이 부여되며 금년도를 끝으로 학과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대학자체 평가 및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적 평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연구과제는 자체 예산으로 전문대학 교육 및 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 등에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전문대학 현안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입학정원 43%, 재학생 비율 28%를 점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 면에서 홀대를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전문대학 지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던 특성화사업의 경우는 약 7년간 동결이 돼 왔습니다. 건의사항과 같이 전문대학 재학생 비중이 부합하는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전문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면서 차별을 받고 있는 내용 중 법으로 명시된 기관장 호칭 개선의 내용입니다. 동 내용은 고등교육기관장으로서의 호칭은 차별화되어서는 안 되고, 직업교육의 천시 풍조 타파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매년 배출되는 학사학위 졸업자들의 자긍심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문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에 제시된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를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김정길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에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5분 또 재보충질의 5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오늘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 도봉을의 김선동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입 3단계 자율화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요? 1단계가 대학에 학생선발 관련 업무 이양, 그다음에 2단계가 2011년부터 수능시험 응시과목 축소, 그다음에 3단계가 2012년부터 대입 완전자율화, 이렇게 가게 돼 있는 데요.

우선 1단계로 지금 대입 선발권 이양에 따라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실무부서가 대입전형위원회 그리고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 이렇게 잘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구성이 완료돼 있는 것입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구성이 완료되어 벌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중요한 업무를 다루시기 때문에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단계와 관련해서, 지금 2단계부터 수능시험 응시과목이 축소되게 돼 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김선동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수능시험 응시과목이 축소되게 되니까 수리나 외국어영역 이런 부분으로 사교육의 관심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인수위나 교과부에서는 수리·외국어 영역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 부분에 대해서 내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능 제외 과목에 대해서는 내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김선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2011년에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면서 보완책으로 내신을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2012년부터 대입이 완전자율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율화가 됐을 때 내신 반영이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흔히 주요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수리·외국어 영역 그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또 다른 제2의 공교육 황폐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비판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보완책이 대교협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부겸 위원장, 안민석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부터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목표로 이미 구성된 입시전형위원회와 그 밑에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연구·논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태스크포스트를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처럼 수능시험 점수라든지 또는 논술고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자질라든지 잠재력 또 그 학교의 어떤 특성화 목표 등등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수능과목이 축소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어떤 피해가 나타나리라고는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는 만전을 기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에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문제는 저희 대학 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교육 자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도교육감과 또 학교장, 그 다음에 교사님들, 다 함께 우리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또 전형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하여간 수리·외국어 이 부분이 중요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교육이 집중이 되고 또 심지어는 내신 반영 때문에 제외된 비인기 과목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사교육의 열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대안을 마련해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아주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서 사교육비 증가는 없애야겠다는 것이 또 기본적인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열심히 검토 연구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리고 지금 3단계로 가면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까지 유지되던 영어지문 출제 금지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되고 이미 일부 한국외대나 경희대에서는 영어 지문을 활용한 논술 문제를 2009년부터 출제하겠다고 이렇게 공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가 되면 사실상 본고사의 부활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교협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이미 금년에 발표한 2010년도 대학입시전형 기본계획에는 이미 논술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논술고사에서 자유롭게 시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대로 경희대학이나 외국어대학에서 영어 지문을 내겠다는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교협 차원에서 서로 협의·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김선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민석** 다음은 민주당의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진 위원** 김춘진 위원입니다.

먼저 학술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술진흥원에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서 연간 한 1조 원 규모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맞습니다.

**○김춘진 위원** 학술진흥법 제12조의2 조항과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출연 연구기관, 학회 등 기관과 단체로 한정되어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맞습니다.

**○김춘진 위원** 최근에 학력 인플레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박사학위 소지자들 많고 대학진학률 세계에서 최고로 높고.

박사학위를 받고도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또 대학도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증설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하고 싶어도 연구를 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장되는 연구자들이 참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향토사학자, 저희 지역에 향토사학자가 있는데 이 재야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특정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동학의 전봉준 장군에 관한 연구라든지 그분이 구수내에서 한 이런 것들이 향토사학자에 의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업적은 대학 연구소, 이 학회에서 낸 업적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학회 회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



습니까? 세 가지 경우 아니라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대개 향토사학자……

○**김춘진 위원** 아니, 아까 전제를 했잖아요, 학회 회원이라고. 없잖아요. 학회 회원이 아니면 못하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회원이 아니면 못합니다.

○**김춘진 위원** 아니면 못 하는데 왜 있다고 그러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듣고 답변하세요.

제가 17대 국회에서 한센인 특별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일본에 있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센인, 한센병과 또 한센인 문제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소록도에 와 가지고 현장에서 리서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참 학문에 강한 나라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박사들이 있지만 이러한 연구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소수 학문 분야의 공부를 하고도, 또 학위 취득 후 자신이 좋아하는 연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연구는 결코 다원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제한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1500억 원에 이르는 R&D 예산도 거의 동일하게 집행이 됩니다.

원장님, 건의드리겠는데 학술진흥연구비 지원 사업은 민간 연구소 등 시장에서 충분히 연구하지 않는 분야지만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 지원할 공공적인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동의합니다.

○**김춘진 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교수가 아니라 이유로, 혹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인이 아니라는 이유, 또 학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연구비를 지급 못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신중히 재검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맞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 주셔야 합니다. 법률상에 있기 때문에……

○**김춘진 위원** 동의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출연 연구원, 학회, 유형별로 연구비 지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희들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학회가 보면 10% 미만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선의 방침으로 학회에 가입해서, 폐쇄적인 학회는 가입도 안 받아 주겠지만, 그렇게 해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낫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개인 연구비 지원받으려면 이것밖에 없는데.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맞습니다. 개인 연구는 현재 그 길밖에 없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이 작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관이 외국에도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많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외국에도 이렇게 연구비를 주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규정 보다는 연구비 중앙 관리 주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김춘진 위원** 아니, 지금 근거 규정을 모르신다면, 만일 검토를 안 해 보셨다면 주요 국가들의 연구비 지급 근거 규정을 살펴서 저희 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또 연구비를 지원할 때 그 단체에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10~15%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간접 연구경비입니다.

○**김춘진 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학술진흥법에서 동 연구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접경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간접경비 지원과 관련한 외국과의 비교 자료 등도 이상임위 질의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그렇

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어차피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될 수밖에 없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그렇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이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항을 들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죄송합니다. 제가 법률 조문의 아주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이 패러그래프만 하겠습니까.

이 조항 4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첫째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산장려금 지급 또는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법 해산 특례 조항은 사립대학교 해산에도 참고할 만한 정책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교협 차원에서 이런 특례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초·중등만 정하는 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춘진 위원** 아니, 그것을 원용해서 대교협도 사립대학교 해산하고 그러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대학에서도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그러한 어떤 특례를 통해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검토하신 바가 없으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민석**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산하단체 대표님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께 여쭙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 제약 때문에. 몇 분께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역사재단의 김용덕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독도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워서 우리 동북아역사재단도 많이 분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미국에서조차 리암쿠르 암석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당혹케 만들었는데 이때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 궁금한데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암쿠르로 바꾼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모니터링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려지자마자 저희가 온갖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래서 BGN이라고 하는 미국 국가지명위원회 거기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독도를 리암쿠르 락이라고 변경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쿠릴열도라든가 조어도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 워싱턴 미국 대사관에서도 알았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내서 알려드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알려 드리는 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 회의를 통해서라거나 이런 방식이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저희가 보통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급히 알려 드리는 것은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교육수석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보고를 적시에 하셨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임해규 위원** 관련된 활동 일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학궁 발굴 사업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지금은 그것이 북한 측에서 일단 끝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후의 발굴 사업에 대해서……

○**임해규 위원** 우리의 판단도 끝난 것 같은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물론 끝나지 않았지요. 김정배 원장님께서 추진하셨던 거라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아마도 혹시 그러한 것이 북한과 우리 남한의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의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쪽입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하지 않자고 한 건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는 꾸준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 측에 공동 학술 활동을 하자고, 그중에는 물론 공동 발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했는데 북한 측에서 그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년 8월 초에 캐나다, 즉 캐나다는 북한과……

○**임해규 위원** 그 정도 해 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제가 충분히 말씀 못 들어서 죄송한데요, 그거는 순전히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그때 안학궁 발굴사업 하는 데 가 봤어요. 북한 당국자들을 보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좀 굉장히 예민하고 이래서 학자들 간의 어떤 깊은 신뢰 관계나 이런 것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아마한 걸음도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장소에 가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인간적 신뢰에 기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어떤 사업의 그런 연속성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막연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요소가 없는지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는 그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에 대한 판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교직원공제회의 이종서 이사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좌우지간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백모 씨와 또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서, 예전의 영남제분 사건과 거의 유사하게 교직원공제회가 주식을, 말하자면 경제성이 없는 주식을 사들여서 우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금 낳고 있고, 그 과정에 어떤 로비가, 이런 게 없었나 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이고 또 현재 이사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는 합시다만 지금 자체의 사정 기능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은 교직원공제회 내부의 사정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상 이사장님 이렇게 임명하는 것 이외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체의 사정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쯤이면 교직원공제회가 답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저나 국민들에게가 아니라 우선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있는 50여 만에 이르는 우리 교사들께 저는 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지난 국회 때에도 존경하는 임 의원님께서 저희 지배 구조라든가 통제 방식에 대해서 법안까지 내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리의식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들이 새로 다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도 이사장을 비롯해 어느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실래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향후에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일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하는 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일단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민석**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丁英姬 委員** 안녕하십니까? 친박연대의 정영희입니다.

(안민석 간사, 임해규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대학 현안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재정 지원 확대 부분과 수업연한 규제 완화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아주 정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골수를 찌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고등교육기관에 지난해 3조 5000억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우리 협의회 회장님이 계셔서 미안한데 그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우리는 7.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학교 수가 고등교육기관 중에 43%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지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사실 알다시피 오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상당히 소외된 아이들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보면 상당히 딱할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업교육의 분야에서,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예산 지원을 직업교육에 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100%. 그런데 우리는 100%는 고사하고 7%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7년 동안, 이걸 작년에는 1조 5억에 대한 1500억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올랐지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특성화에서 1680억이라고 하는 정도의, 7년 동안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대학 육성이 아니고, 이 나라 산업과 경쟁력을 높이고 또 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전혀 다르게 애네들을 소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선진국과, 또는 우리나라의 모든 형평을 감안해 볼 때 차등하지 말고 평등하게 지원하고 중점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업연한은 지금 저희가 2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가의 경우는 수업연한이 전부 자율화돼 있습니다. 어떻게 자율화돼 있느냐면, 제가 독일에 한 5, 6년 대사관의 교육관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70년대에.

그때도 보면 이미 이쪽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직업교육 실업교육 이렇게 하다가 공부가 잘 돼서 새삼스럽게 열심히 하는 애들은 또 다른 데로 바꾸어 줍니다. 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 교육제도가 탄력성 있게 오가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고착시켜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丁英姬 委員** 죄송합니다. 조금 짧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연한을 1년부터 4년까지 다양하게 좀 제도를 자율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丁英姬 委員** 그렇다면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고등교육기관의 한 축으로서 우리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전문대학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우선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예산 관계도 있지만 우선, 죄송합니다만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이 학교의 공부를 좀 덜하다가 이제 전문대학에 와서 각성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애네들에게 이번의 어느 입학, 취업에도 그랬고, 너희 총장 졸업장 가졌냐 학장 졸업장 가졌냐 이런 문제를 합니다. 애네들이 2월 달이면 졸업을 합니다만 애네들이 전공 심화과정을 나오고 총장 졸업으로 가느냐, 학장 졸업으로 가느냐 하는 이런 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네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실어

주는, 또 평등 차원에서 이런 타이틀을 선진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율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경우는 프레지던트고 일본도 학장으로 동일합니다. 중국도 샤오짱으로 교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전문대학만 종합대학의 Dean이라는 역할과 같이 돼서 이걸 완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을 약화시키고 전문대학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찾으려는 아이들에게 생을 좌절시키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丁英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인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청년실업 문제,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복안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제가 위원님들 앞에 외람됩니다만, 여기 같이 계십니다만 고등교육체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봐서 학문 중심 대학과 직업교육 중심으로, 두 트랙으로 나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노벨수상을 타려고 하는, 학문 분야 쪽으로 나가는 애들은 나가고, 아니면 산업체에 들어가서 중추적인 역할로서 팔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을 길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4년제 선호사상이 생겨 가지고 머리는 커지고 팔다리가 약하고 허리가 약합니다. 이런 데서 무슨 산업화가 되고 경쟁력이 생기고 이럽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교육제도 트랙을 좀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통정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국회에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丁英姬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장학지원사업도 하시는데 학자금 지원사업은 예년과 비교해 예산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丁英姬 委員** 페이지 4쪽을 보십시오. 요즘 많은 학부형님들과 학생들이 살인적으로 인상된 등록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무총장께서도 잘 아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丁英姬 委員** 그런 차원에서 장학지원사업 부분은 좀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장학지원사업은 특수목적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부모가 농촌에 살고 계시거나 하는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인문계를 전공한 석·박사만 대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걱정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지금 기금 사업으로, 주택기금이나 아니면 교육부 내부에 특별한 학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보전해, 이율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쪽이 확대되면서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丁英姬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고맙습니다.

○**丁英姬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해규** 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진짜 존경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임해규** 그럼요.

○**안민석 위원** 대교협 손병두 총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대교협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한데 그동안 17대 때는 전 회장님께서 바쁘셔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질의를 하고 서로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교협이 위상만큼 우리 회장님께서, 또 학교도 가까우시니까 국회에 가능하면 자주 오셔서 저희들하고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회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시기 좀 구체적인 질문이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신청아 씨 사건 이후에 논문 검증 부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교협에 논문 검증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간 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저희들이 국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기존의 학진에서 해 오던 검증 시스템하고 통합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학진에서 단일 시스템으로 하든 아니면 대교협에서 하든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학위 검증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논문도 마찬가지로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대교협에서는 이 업무에 이 부분이 상당히 활애가 되어 있는데,—39쪽부터 40쪽까지—그런데 학진에서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학진은 이 업무를 대교협으로 다 이관한 건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그건 아닙니다. 학진에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거를 대교협으로 주면 안 되나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현재 대교협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작년에 안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업무에 관한, 분명하게 분담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민석 위원** 제 기억으로는 통합을 요구했고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반대로 그러면 대교협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를 학진 쪽으로 다 주시면 안 되나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제가 작년에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경과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대교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위의 진위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대교협의 인력으로, 또 우리가 대교협과 비슷한 외국 기관과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위에 대한 검증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논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전문적 이랄까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술진흥 재단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안민석 위원** 그러면 학진에서 논문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인정 받은 인원은 다섯 명입니다. 팀장을 포함한 다섯 명인데……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크게 인력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인력이면 제가 볼 때는 대교협에서 인력을 보강하든지 자체적으로 업무 조정을 해 가지고 단일화된 기관에서 모든 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여러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단일화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기관 간의 어떤 업무 영역 챙기기 식으로 비쳐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한 번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는데, 너무 더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원화가 되면 속도도 빠르고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는데 두 기관 간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제가 이거는 다음 국감 때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양 기관이 서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대교협에서 하는 일 중에서 이번에 사학법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지금 어떤 방향의 사학법을 개정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활동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사학법이 개정이 되고도 재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외국에는 유사한 그런 법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사립학교총장협의회 내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되어서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해

서.....

(임해규 간사, 김부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없으 시고요.

그런데 대교협에서 사학법개정특위까지 만들어 서 논의를 하는 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는 보지 않으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아까도 말씀드 렸듯이 우리 대교협 198개 회원 대학 중에 80% 가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에서 요구하 는 사항을 당연히 대교협체 안에서 논의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교육의 문제, 사교육비의 궁극 적인 문제는 대학입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고, 그리고 대교협이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교협에서 지금 하고 있 는 사학법대책위원회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학법대책위원회보다 사교육대책위원회를 왜 만 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사교육 에 대한 대책을 대교협에서 논의하는 그런 기구 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꾸 대교협 회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나머지 분들에게 죄송한데요.

회장님, 혹시 NCAA라는 단체 들어 보셨습니 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제가 잘 모릅니 다.

○**안민석 위원** 미국 대학체육 아마추어 연맹인 데요, 여기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라오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스카우트 규정이라든지 또 4 년 대학 동안의 운동선수 규정이 NCAA라는 이 규정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서강대는 운동부가 없으니까요, 연·고대 운동선수들은 수업 전혀 안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제가 잘 모릅니 다.

○**안민석 위원** 수업을 전혀 안 들어가더라도 학 점을 A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 구조 알고 계십 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제가 그것을 아

직은.....

○**안민석 위원** 교수가 수업 전혀 안 들어오고 시험 한 번도 안 들어온 학생에게 F를 주더라도 대학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학 점이 C나 B로 처리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 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모르고 있습니 다.

○**안민석 위원** 이것 제가 교육부에 얘기해서 고 치라고 그러면 이걸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은 대교협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님들이 모여서서 구조적으로 왜곡된 한국 의 대학체육을 정상화시키자, 어떻게 운동선수들 이 수업 한 번도 안 들어오고 4년 동안 시험 한 번 안 봤는데 어떻게 학점이 나가고 어떻게 졸업 을 할 수 있느냐? 이것 총장님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여서 해결하시고 미국의 NCWA 같은 기구를 만드셔서 한국의 대학체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회장님 계실 동안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 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열심히 연 구·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겸** 안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고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여섯 분의 책임자 분들 외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술연구정책실장, 기초연구 정책관, 학교정책국장, 평생직업교육국장, 대학연 구기관지원정책관, 학술연구지원관이 같이 배석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이 분들에게도 질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 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시간입니다.

오후 첫 질의로 존경하는 박보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환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화성을 출신의 한나라당 박보환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종서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7월말 현재 공제회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확정형 상품이 15.7%, 실적형 상품이 84.3%입니다. 공제회의 유가증권 중 확정형 상품인 채권 직접 금융상품의 비중이 2006년에는 50.2%, 2007년에는 17.1%, 2008년 7월말 현재 15.7%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주식과 같은 실적형 상품 투자를 확대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운용은 주식시장의 상승세에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올해와 같이 주가지수가 급락할 경우에는 수익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채권 직접 등의 경우 6%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는 반면에 주식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2523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올해 7월말 현재 445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여 수익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정형 상품의 비중이 해마다 감소되어 주가지수 급락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한 공제회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존경하는 박보환 위원님 지적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실적형 비중을 늘렸습시다마는 올해에는 실적형의 주식보다는 주식과 일부 연계된 채권형 상품에 많이 편중을 했습니다. ELF라든가 구조화된 채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고정된 채권은 아니지만 채권에 유사한 이런 실적형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안정적 수익 제고를 위해서 투자 상품 선택에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오늘 오전 질의시간에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시다마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제회는 2007년 1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펀드에 55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특혜 의혹으로 9월 4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건설업체인 부산자원은 지난 2006년에도 부당대출과 관련해서 부산지검 특수부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고, 2006년 당시 모 여권 관계자 또 모 부처 장관 친동생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 유착설이 끊이지 않았습시다. 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당시 공제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수사 받은 내용을 알고 있었습시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KBS 보도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사 결과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었고 오히려 보도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보도한 측에서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한 이런 사실이 있었습시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됐습시다.

○박보환 위원 아무리 수익성 있는 펀드에 정상적으로 투자했다 할지라도 장기간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투자와 관련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투명성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그러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금년 주식시장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또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초1890포인트에서 현재 1400포인트까지 거의 한 26%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주식투자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제회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저희 공제회도 사실 올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었습시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대비해서 주식을 한 3160억 원



정도 비중을 줄였고 차지하는 점유비율도 4.3% 정도를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만큼 충분히 감축 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선 종목 선정부터 안정적인 종목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위험 분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다음에는 대체투자 부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제회의 최근 3년 대체투자 부문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06년 1345억 원에서 2007년도에는 1798억 원, 2008년 7월말 기준으로 311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은 2006년도 4.8%, 2007년 4.4%, 그리고 올 7월말 기준으로는 2.2%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2007년의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인 32.3%와 비교하여 크게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투자 부문의 수익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수익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을 확대한 이유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대체투자가 주로 조합 투자하고 PEF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M&A 사업 같은 데 5년 이상 투자를 해서 중간에 배당이나 이런 것보다 M&A에서 빠져나올 때 원래 추구했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 소요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 조합 투자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겸 박보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표 위원 김진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사 참여 관계로 업무보고를 직접 받지 못해서 각 보고 기관별로 업무보고서를 좀 공부를 했는데 읽어 보다가 잘 모르는 것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직원공제회, 지금 교직원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전문가가 몇 명이나 되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외부로부터 전문가를 채용한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처음 채용돼서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투자전문가로서 연수를 받고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 담당자들이 밖에 운용사 못지않은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몇 명쯤 되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인원수로 딱 투자전문가라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직접 투자 의사를, 투자기법이나 기술을 결정해서 대상과 이런 것을 하는 것하고 밖에 펀드에 경쟁을 시켜서 아웃소싱을 주는 것의 비율이 대체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주식을 2조 3000억 운용을 하는데 지금 밖에 일임을 통해서 준 것이 한 1조 3500억 되고요. 저희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한 구천사오백 억 됩니다.

○김진표 위원 밖에 일임을 할 때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ELS라고 그러냐? 주식시세라든가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때는 수익률을 나눠 갖고 하는 그런 계약 조건하에서 하는 거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작년까지는 수익률이 10%에 달하면 안정형으로 전환시키도록 해서 투자를 했고요. 작년에 그것이 실적의 저하를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M 대비 초과수익을 올리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실적이 나쁘면 자금을 회수하는, 완전 실적형으로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국감에 대비해서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투자 유형별로 직접투자 하는 것하고 아웃소싱을 줘서 하는 것 각각의 수익률 비교 또 다른 연금공단들과의 투자수익률 비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다음에 학술진흥재단 보고서 9쪽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에 보면 올해 한 사람당 받은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 10페이지 인문학장학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300만 원, 작년에 390만 원이었는데 더 줄었어요. 그다음에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인문사회

학술연구조성사업, 이공분야 학술연구조성사업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학진이 다양한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실제로 1건당 지원 금액이, 한 사람당 지원 금액이 아까 장학금의 경우에는 그나마 많은 거고, 한 사람당 30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12쪽에 보시면 인문사회 우수연구지원사업이 과제당 4200만 원 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과제에 대체로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연구원이 중사하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과제는 개인이 혼자 하고……

○**김진표 위원** 대체로 평균 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평균 약 1.8~2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대학원생들이 따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리고 이공분야가 조금 커서 5500,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와 이 통계를 좀 비교를 해 보세요. 제가 대학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 보면 학진 연구비는 너무 잘게 쪼개서 찢끔찢끔 주기 때문에 학과에서 학과장이 그것만 갖고는 연구를 할 수가 없고 다른 데 붙이든가 다른 것하고 합해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어떤 독자적인, 제대로 된 연구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좀 못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예산 지원을, 우리 국회에서도 좀더 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학진의 연구비를 받으면 뭔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저희들도 항상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허락치를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시간이, 5분씩 질의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부겸** 7분이요.

○**김진표 위원** 대교협과 전문대학은 워낙 중요해서 천상 나중에 여쭙 봐야겠네요, 시간이 다 가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중핵 거점대학 사업

비가 얼마나 되나요? 업무보고에는 금액으로는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해외 한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이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3~5억으로……

○**김진표 위원** 한 학교당?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모두 6억이 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한 학교당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아닙니다. 전부가 6억입니다. 그러니까 3~4개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데 6억을 가지고 쪼개서……

○**김진표 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해외 중핵 거점대학 제도는 해외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 전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24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김진표 위원** 외교부 게 이리로 안 넘어왔나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안 넘어와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24억인가를 몇 개 대학에 쪼개 주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6개 대학이 지금 선정이 됐고요, 금년에 3~4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 문제도 제가 좀, 우리나라에서 외교부도 그렇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그렇고 해외에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양성하려면 매년 예산을 찢끔찢끔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하거나 하면 그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대학원생 하나라도 양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맞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중핵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 대학이 고유적으로 예를 들면 동부에는 하버드다, 서부에는 UC버클리다, UCLA다 이렇게 몇 개의 거점대학을 정하면 그 대학 자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정도 묶의 펀드를 만들어줘야 사람을 키우고 육성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워크숍을 그 대학 중심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돌아가나요?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 있으면 그 답변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부겸** 이렇게 하시지요, 김진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김진표 위원님 답변……

○**김진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추가하면 아사미문고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김진표 위원** UC버클리 아사미문고 이름을 우리 것으로 바꿔오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대책을 국회에 요구를 해서라도 한국의 중요한 문헌이 일본총독부 국장 이름의 문고로 해서 해외학자들 간에 연구를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지요. 불과 150만 불만 있으면 우리 문고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대책을 만들어서…… 제가 국정감사 때 그것 질문할 겁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고맙습니다.

○**김진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김진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朴英娥 委員** 한나라당 송과갑 출신의 박영아 위원입니다.

오늘 산하단체 대표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일본 문부성의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영유권 명기 발표 이후에 독도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즉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 범위를 벗어나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그 기점을 울릉도와 오키도로 하면서 독도가 한국 쪽으로 들어오지만 독도의 영유권과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후속문서로 만들어둔 것이 있어서 독도영유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도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단순한 암석인지 아니면 도서인지 이사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그것은 도서입니다.

○**朴英娥 委員** 도서라면 독도가 도서로서의 지위를 가지면 당연히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의 발령기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배타적 경제수역은 아니고 영해 12마일은 독도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질문은 만약에 독도가 도서라면 EEZ의 발령기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그것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정할 때 울릉도와 오키섬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유권과는 관련이 없는 점에서 저희가 신한일어업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독도를 무인도냐 아니냐 하는 것과 신한일어업협정과 관계는 좀더 국제법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면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는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발령기점으로, 일본은 오히려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발령기점으로 주장하여 결국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나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국가의 주체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특히 영토는 국체를 이루는 배타적 권리이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중간’이나 ‘잠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영토주권을 훼손하고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준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그 문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범위는 조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朴英娥 委員** 다 아시다시피 영토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실효적 지배와 결정적 기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도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영토의 역사적 권원을 밝히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물론 국내의 홍보는 이러한 근거에 입각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지난 8월 14일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 외 5만 9267명과 함께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즉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국토임을 천명한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 칙령 반포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정도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권원을 방치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재단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독도의 날 지정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시마네현에서 고시를 하기 전에 1900년 고종황제 칙령으로 낸 것은 저희가 충분히 외국에 알리고 있고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가볍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독도의 날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생각을 신중하게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죽도의 날을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우리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마치 독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시마네현의 입장과 유사한 대응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독도는 엄연한 우리의 국토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에 동요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굳이 어느 지역의 날을 꼭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근대에 와 가지고 특히 대한제국

이래 고종황제가 1900년에 독도를 우리 국토라고 고시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독도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이 될 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다음은 추가질의에 다른 재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박영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世淵 委員** 안녕하십니까?

부산 금정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독도 관련한 그리고 우리의 주변 국가들인 일본의 독도 관련한 영토 문제, 나아가서 역사 문제에 대한 외국의 시도 그리고 2007년까지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종료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소위 동북공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동북아역사재단 차원에서 대응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역시 우리 주변에, 우리 영토 주변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학문적인 연구를 심화하는 차원에서 대마도에 대한 별도의 연구방안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현재 만약에 없다면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마도 연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볼 생각이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대마도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마도에 대한 연구가 한국의 대마도 영유권에 대한 연구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인 한국 측의 권리를 확인하는 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많이 한국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고대부터 그것은 일본의 영토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마도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마도가 한국에 대한

침략의 기지가 됐다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잘 활용을 한다면 대마도가 앞으로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벗어나서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대마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정치적인 의미를 두기보다는 순수하게 학술적인 연구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金世淵 委員** 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11일에 1차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8월 26일에는 2차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의 R&D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을 통합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학술진흥재단을 포함한 3개 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찬반여부를 떠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여론을 보니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교육, 특히 연구 분야를 효율성 관점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문사회학을 포함한 기초학문 분야는 응용과학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분야보다 자칫 효율성 관점에서 판단하다 보면, 물론 한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자칫 인문학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해서 인문학의 여러 가지 위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진만 하더라도 장학사업 또 BK 21사업 또 누리사업, 학술연구조성사업 등을 주관하면서 많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도 영향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까지 통합되었을 때 규모가 훨씬 커진 한국연구재단이 탄생할 경우에 오히려 개별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김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등교육 특히 연구 분야를 선진화 내지는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관한 질문은 세계 각국이 이미 기초연구 지원시스템의 선진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구 지원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시스템을 하면서 벤치마킹의 모델을 NSF로 잡은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연구지원시스템보다 조금 더 글로벌한 연구지원시스템, 그래서 오히려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자기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인문학의 위기가 오히려 더 강해질 것 아니냐, 말하자면 학문의 다양한 지원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데 여태까지는 결국은 과학기술의 예산과 인문사회의 예산은 별도로 작업이 되어 왔고 통합 후에도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과 반대로 옛날에 학술진흥재단이 인문학을 너무 강화한다고 그래서 과학기술계에 계시던 연구자들이 학술진흥재단이 거기에 인볼브(involve) 됨으로 해서 통합재단이 오히려 과학기술계의 예산을 잠식해서 과학기술계 예산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 거꾸로 이렇게 묻는 연구자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시고, 결국은 효율적인 예산의 분배를 통해서 모든 연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출해 내는 것이 새로운 연구재단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공룡 같은 통합 재단에서 혹시 학술 연구자들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염려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결국은 공룡 같은 재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각각의 조직을 통해서 학술연구 유형별, 말하자면 인문학 또는 예술체육 그다음에 사회과학 그다음에 기초과학 그다음에 응용과학 이런 파트들이 독자적인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PM 제도나, 아니면 조직을 더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연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새로운 재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겸**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 손병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회장님과 저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하는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교육 문제를 두고 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토론은 생략하고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대교협 합의사항은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대교협 합의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협의체의 자율적인 구속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구속력이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권영길 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협의회 내에서 서로 약속한 것을 위반할 때는 그 신사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제재를 저희들이 가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본고사 고등학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즉 3불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의 기초였습니다, 골간이었습니까. 대교협에서는 2010년까지 유지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권영길 위원** 2010년 이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시 문제를 위해서 입시전형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구성 멤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 위원**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2010년까지, 즉 2009년 2010년까지는 3불제를 유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논술시험이 사실상의 본고사로 시행되려고 해서 사회적 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지요? 지난 정부에서 논술고사를 사실상의 본고사로 실행하는 문제, 차등내신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서 지난번에는 일단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어느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사실상의 본고사로 실시하겠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즉 아까 논술 가이드라인은 폐지한다고 그랬

습니다. 논술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것은 우선 과목도 여러 과목을 해도 좋을 테고 또 구체적으로는 지필고사 형태의 논술고사를 치뤘도 좋을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폐지한다는 것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겁니다.

○**권영길 위원** 맡긴다는 거지요?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권영길 위원** 지필고사의 논술고사를 실시해도 그거는 각 대학 측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쭙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법에 의해서 물으시는데……

○**권영길 위원** 아니, 제가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가서……

그러면 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본고사의 성격이 있는 그런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그다음에 차등내신제라는 것은 과학고라는 데, 특목고, 또는 지역에 따라서 강남에 있는 어느 학교, 농촌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가산점을 이렇게 줬다 해서 차등내신제와 본고사 성격의 논술고사를 어느 학교가 실시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지금 차등내신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했다 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으시고……

○**권영길 위원** 아니, 제가 시간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제 말씀 들으시고 부족하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학 자율화를 대교협에서 말으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지혜를 맞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은 자율화다 그렇게 하되, 옛날에 실시했던 본고사니 그런 것은 이제는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도가 보완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척도가, 대학에 들어오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이 딱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권영길 위원 아니, 회장님, 저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우리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께서 다 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본고사 성격의 논술고사가 실시될 거냐 안 될 거냐, 왜냐하면 아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영길 위원 가능성이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권영길 위원 그다음에 차등내신제도 실시되지 않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그것도 가능성이 없다……

○권영길 위원 분명히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권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을 실시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합의사항은 법적인 건 아니지만 구속력이 있다, 강제될 사항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권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학교육협의회법을 이렇게 정부 쪽에서 입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번에 대교협에서 자율 규제 로 실시하는 이 입시제도가 얼마만큼 정말 국민들의 저항 없이 이해 속에서 실시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앞장서서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권영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우리 대교협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대학윤리위원회 등등 죽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윤리위원회가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윤리위원회 업무 중에서 ‘교직원 임용 등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필요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누구보다도 어떤 노사 문제, 특

히 비정규직 문제는 잘 아시고 전문가라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권영길 위원 그것 때문에 저하고 오랫동안 토론도 해 왔습니다.

성신여대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그래서, 노동조합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성신여대에서 지난 8월 달에 청소 용역원 65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고 있나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지난 8월 31일 날 65명의 청소 용역원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다 10년 이상씩 근무를 했습니다. 50~60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바꾸어 버렸다, 학교에서는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교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윤리위원회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사 및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하시고, 대교협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문건으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손 회장님, 지금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방금 권 위원님 질의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지금 이 사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안 되면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이라도 하게 하십시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위원장 김부겸 권영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군현 위원 통영·고성 출신 이군현입니다.

우선 학진, 우리 총장님이 나오셨던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학진이 지금 통합 관계로 여러 가지 좀 복잡하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이군현 위원** 지금 이렇게 통합하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첫째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맞습니다.

○**이군현 위원**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제가 미국 NSF에, 미국 과학재단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디비전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리·수학 이런 디비전이면 물리·수학에 학계의 아주 권위 있는, 전국의 사계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맡겨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맞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좀 돼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바꾸면서, 통합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소위 PM 제도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잘 짜고 있나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프로그램 매니저가 결국은 통합 재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통합하면서 PM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이게 그동안에 우리 과학재단은 과학재단대로 또 과거에 학진은 학진대로 이렇게 분리되어 오던 것이 통합되면서…… 통합할 적에는 그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있을 때 통합하는 거지 시너지효과가 없으면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요.

첫째는 그렇게 꼭 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국회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씀을 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고맙습니다.

○**이군현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을 균형 있게 학진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인문사회 쪽 교수님들이 또 학자님들이 지나치게 과학기술 분야, 교수 위주로 큰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좀 들어 보셨나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일부 들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것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제가 결코 과학기술을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과학기술계에 20년 동안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 또 과학기술 시대고 핵심은 과학기술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문사회가 절대로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과학기술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주도함으로 해서 인문사회에 있는 분들이 이 과도기(transition period)에 의견 반영을 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 인문사회 쪽 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라는 곳이 온갖 분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꼭 좀 챙기셔 가지고 그분들, 단장들이 있잖아요. 그 단의 단장들 이야기도 들으시고 인문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으셔 가지고 이거를 균형을 잘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 좀 드리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잘 알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학진에서, 우리 17대 때 제가 어떤 주장을 했었느냐 하면, 교육부에다가도 얘기하고, BK21사업 같은 것은 핵심적으로 KAIST나 포스텍이나 서울대, 요 세 군데에서…… 잘하는 곳에다 주는 중심으로 하니까 암만 해도 연구 실적이 좋은 대학이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구비를 지나치게 페이퍼 중심으로, 연구논문 중심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학부 교육을, 언더를 잘하는 대학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17대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그래프까지 그려 가지고, 감사가 끝나면 최종 마지막 날 교육부 확인감사 때 다시 제가 하고 그 그래프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직책을 맡은 분들이 많이 바뀌고 해 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팔로 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부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는 대학에 줄 수 있는 돈을, 좀 재



원을 따로 마련해서……

누리사업은 또 다른 거예요. 누리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지방에 있는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대학에다가 주는 거고, BK 사업을 보완한 거지요.

BK는 순전히 연구 중심, 리서치 유니버시티에 집중적으로 주려고 해서 생긴 건데,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누리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나 누리사업도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부 교육을 충실히 하는 대학에 줄 수 있는 돈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 같으면 석·박사가 있지 않더라도 학부 교육을 아주 충실하게 잘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전부 석·박사만 하고 교수들이 연구논문만 쓰는 게, 그런 대학도 있고, 그렇지요? 교수를 길러내고 또 박사를 길러내서 산업체에 가서 연구를 할 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학부 교육을, 대부분은 또 대학원을 가지 않고 학부 마치고 직업인이, 사회인이 된단 말이에요.

학부 교육을 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맞는 충실한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들을 또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대학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이 필요하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마련된 게 좀 있나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금년도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고 2008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는 교수님들의 소위 퍼포먼스, 연구의 역량이 아니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대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새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것 우리 이종서 이사장님이 전에 차관 하실 때 제가 했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얘기니까 그것 좀 잘 챙겨서 그런 대학들도, 학부 교육도 충실히 하는 대학도 또 나름대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면 좋겠고요.

시간이 벌써 다 가 버렸네.

대학교육협의회의 손 회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교협 회장의 사학법 재개정 추진 입장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부패사학을 양성하자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지금 사학법이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재개정까지 갔지만 아직도 건전한 사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을 봐도 유레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필코 재개정이 다시 되거나 안 그러면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부패 문제는 사학법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형법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법으로 가는 것이, 굳이 사학법이라는 것에 넣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이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군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오전에 학진 측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양해하신다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와 있는 학술연구정책실장으로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받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군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 나오셔서 아까 두 재단 통합과 관련한 그 문제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좀 하시지요.

위원님들, 요 문제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과학기술부학술연구정책실장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 이걸우입니다.

지금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법안이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이군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PM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배 체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에 대한 상근이사 체제와 그분의 임명권을 대통령님께 주는 그런 체제로 지금 저희들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저희들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그 법안하고, 인문사회에 있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학술연구정책실장 이걸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난 뒤에 규정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만들면서 그 단어를 구성하고 이럴 때 인문사회계도 충분히 배려하고 예산 작업할 때도 충분히 배려하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이 실장님, 오전에 학진 측에서 보고한 마지막 21페이지 우려에 대한 이야기 없으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학술연구정책실장 이걸우** 예.

○**위원장 김부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위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따라는 가겠지만 구성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우려와 불안 또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세요?

○**교육과학기술부학술연구정책실장 이걸우** 인문사회계에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또 이름에 학술을 붙이자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고, 인문사회계에 특별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안이 준비되고 국회에 제출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여러 위원님들, 이 실장한테 달리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광주 서구을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구촌이 WTO 시대를 맞이해서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일본은, 미국은 NAFTA로 영내 국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EU를 결성해서 심지어는 영내 국가의 단일화, 화폐까지 단일화하면서 지구촌의 현안에 대해서 공동 입장을 취하면서 고스란히 양대 힘의 축을 바탕으로 해서 이익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65억 중에서 40억이 살고 있는 아시아도 이런 지역연합·동맹·연대와 협력의 강화가 매우 필요한데 아시아의 연합과 일치·동맹은 한·중·일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술·

전략적으로 개혁·개방을 위해서,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들의 입장을 전환할 뿐이지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올곧게 자리매김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높은 장벽이, 그리고 한일 양국 간에는 깊은 골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나 외교적으로 한일 간의 이런 골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각료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계속된 망언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 그 상처가 다시 덧나게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제일성으로 일본에 있는 2만 1160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그런 거짓말 교과서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회에 한일기독교의원연맹이 결성돼 있었는데 저와 황우여 의원 그리고 원철희 의원 등 몇 분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7일간 물과 소금만을 먹으면서 이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를 온몸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왜곡된 역사교과서는 0.3%에 그치고, 일본의 양심세력과 함께 우리가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이런 일을 저지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초로 교과서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 내용을 포함시키고 또 지난 9월 5일에는 또다시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4년 연속 확대해서 이를 명기,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역사교과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항의로나 또 뒤늦은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동북아역사재단도 최근 독도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이에 대응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 관련 기관의 내실 있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최근 재단이 발간한 ‘은주시청합기’라는 자료집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고문서를 번역한 것인데 번역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발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우선 은주시청 합기는 저희 재단에서 내부 자료로 발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것을 떠나서 이것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좋지 않겠다 해서 내부 자료로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내부 자료든 외부 자료든 일단 재단이 연구를 해서 어떠한 내용을 발표할 때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영향과 파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내부 자료니까 우리들만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오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번역 원문에도 없는 ‘일본인이 사는’이라는 그런 표현을 추가시켜 가지고, ‘서북 한계는 오키섬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일본의 서북 한계는 독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이 우리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동기 부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하나의 예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 적어도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다른 새로운 빌미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일본에게 그렇게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구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 책은 번역이기 때문에 그 앞에 번역을 한 이유랄까 이런 것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우리 재단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하는……

○**김영진 위원** 여러분은 학자적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영토를 주장하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그런 논리에 새로운 빌미의 동기가 부여되면 그것이 일파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민감하잖아요, 양국 간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김영진 위원** 그다음에 학술진흥재단에 한 가지 말씀을……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보충질의는 안 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예.

○**김영진 위원** 앞서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의 역사 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학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기관으로서 학술진흥재단도 이에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장께서는 공석이신데 총장께서…… 그동안 독도, 동북공정 등 역사 연구의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그렇게 개별적으로 얼마 얼마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독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책연구소를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독도 문제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데 학술재단 사무총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련 연구비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이것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학술진흥재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학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상임위가 아니어도 여러분께서 통달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는 높고 펄펄 뛰는데…… 그렇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말씀 올리겠습니다.

독도는 특별연구소를 지정을 해서, 2008년에 영남대학교에 독도 문제만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지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1년당 연구액은 5억입니다. 동북공정에 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진흥재단에서 별도로 아이템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북아 동북공정에 관해서 연구자께서 개별적으로 내셔서 연구

지원을 한 적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그것이 전부 얼마다 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 곧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다음에 재단의 연구비로 진행된 논문들에 대해서, 재단이 검증을 거쳐서 표절로 드러나고 있는 논문들의 실태가 어떠한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재단이 연구를 지원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전부 받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연구 진실성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재단의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제 전액을 환수하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 한 5년 정도 저희 재단에 지원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법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총장께서 답변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표절로 드러난 논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태가 어느 정도나, 실태가 어느 정도예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숫자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김영진 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가 밖에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아득한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재단으로서 우리가 지원하고 집행한 지원금으로 연구한 결과와 논문이 표절의 시비와 대상이 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감도 느끼게 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재단이 더 정확하게, 1조 원이 넘는 것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거기까지 책임을 느끼면서 일을 하셔야 한다 그 말이예요. 사회적으로 문제 나오면 그냥 일회용으로, 미봉책으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지금까지 학술진흥재단이 집행한 예산, 최근 5년간 집행한 예산 속에서 표절의 시비가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이 부족하다면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학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감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나머지 두 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정배 이사장님에 대한 문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에 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부겸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 경북 김천 출신 이철우 위원입니다.

동북아재단 이사장님한테 좀 여쭙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미 의회도서관에서 우리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교포가 알아내서 그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신문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 갖고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 갖고 그것을 고치게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 거기서 한국 정부라는 것은 외교부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외교부도 있습니다만, 의원외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런데 오늘,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한국을 소개하는, 각 나라를 다 소개하는, 200개 이상 되는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로 들어가면 지도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리앙쿠르 락스로 나와 있고 화살표를 해 놨더라고요. 화살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뜻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바다도 씨 오브 재팬(Sea of Japan) 이렇게 되어 있

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북아재단에서 매일 체크를 해 보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냥 놔둬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아니지요, 물론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무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미국 측에서 여러 기관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리앙쿠르 락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한일간의 영토 분쟁에서 중립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밝혀졌듯이 독도는 한국령으로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령으로 한 바에야 당연히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씨오브 재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국제적으로 꽤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해(East Sea)를 요청하는 것이 지금 많이 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씨오브 재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다시 말하자면 미국 정부에만 요청을 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지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지리학자들이 ‘이것은 동해로 하는 것이 맞다’ 또는 ‘잠정적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러면 동북아재단에서 굳이 미국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유럽 여러 나라가 있겠지요. 그런 데도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이철우 위원** 그런 조치 취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구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그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또 여기 국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한국은 2000년의 기록된 역사 동안 주변의 크고 작은 많은 침략을 경험했다. 이러한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역사적인 반감은 한국에 ‘은둔의 왕국’ 명칭이 붙여졌다. 중국의 힘이 감소됨으로 인해 서구와 일제의 침략에 노출되었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한

국의 역사가 2000년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그 부분은, 물론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통용되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서의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약 2000년이다 하는 것을 아마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리고 미국의 AP 교과서, 이 교과서는 미국 대학교 교양 과정을 고교에서 미리 배우는 과정인데 2007년도 개정판에 ‘한국 최초의 국가가 신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모두가 중국의 영향력이 아닌가…… 이것은 한국학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2000년밖에 됐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기원전으로 우리 역사를 깎아 내리기 때문에 그 영향은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해외에서의 한국학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학에 비해서 우리 학문이 다소 해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일본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종종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동북아역사재단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위원** 그리고 고조선하고 고구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저도 과거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내에서 한 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이 또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왜냐하면 한국을 홍보하려면 외국 사정을 많이 아는 분이 계셔야지 비교를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만 알면, 우리 것이 외국에서 어떻게 비쳐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실력 있는 분이 가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야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술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재단에서도 많은 지원금을 해 주시고 제가는 곳에서 독도연구소를 많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돈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감사합니다.

○**이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겸** 이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학술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걱정하는 일각의 시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통합을 하고자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칫 졸속 또는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통합하고자 하는 의미가 인문 분야와 이공 분야에 융합적인 연구를 촉진하겠다 또 기초연구의 비중도 높이겠다 또는 PM 역할도 강화하겠다 이런 등등이 그런 명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반드시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을, 각각 개별적으로는 거대조직인데 이렇게 초거대기구로 통합시키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게 아무런 부작용이나 역작용 없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에 대한 설득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난 2008년도 3월 20일날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 안이 제시되었다가 6월 19일날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남짓에 법안이 나왔고 공청회 한 번 개최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대해도 될까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식기반사회 또 대한민국을 끌고 오는 지식인, 학문연구자들이 직접적인 관계되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실질적

인 토론이나 의견수렴과정은 매우 소홀한 것 같아요. 또 실제 일선에서 들어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과학재단만 해도 77년도에 설립이 돼서 30년 넘었고요, 역사가. 학술진흥재단도 81년에 설립돼서 27년 이것도 30년 가까이 됐고, 이리데 이것을 불과 3개월 사이에 공청회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되는 것이, 저는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고 설사 아무리 마땅한 내용이 담겼더라도 학문연구자들 사이에 공감대 구축하려면 상당한 설득과 양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오히려 갈등 이런 것들만 더 증폭돼서 비용만 더 증가되고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지적하신 의견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두 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청회는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했습니다. 박영아 의원께서 발의해 주셔서 7월에 한 번 더 공청회를 했어요.

그리고 두 재단의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 사이에서 문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 지나 아니면 현재 과학재단의 이사장을 대행하고 있는 지도부들이 모여서 다시 논의하고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노력은 하는 것도 알고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말씀 중에도 그렇거든요. 두 기구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두 기구의 구성원들 사이의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원을 받는 학문연구자들이 더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그분들한테 공감대를 구축해서 같이 공유하고 동참하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구의 논의구조로 바뀌면, 두 기구가 통합되면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신분보장은 어떻게 이런 것으로 흐르게 되는데 사실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학문이 더 진흥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가 통합시키는 내에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고 착안을 할까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입법과정에서도 저희들은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 이렇게 학문영역에, 어쩌면 학문영역은 어떤 생각들을 하든 학문종사자들한테는 최고의 자유를 만끽하게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이상민 위원** 만끽하게끔 그 영역에 뛰어야 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해도. 설사 우리 국가질서와 상반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한 그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거대 기구를 통합하고, 그렇게 자유가 주어져야 될 학문영역에 종사하는 연구자들한테 이렇게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사실은 두세 개로 나뉘지는 것과 달리 거대조직으로 통합되면 정부가 컨트롤하기가 좀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문영역에 집권자, 권력을 쥔 입장에서는 컨트롤하고 싶거든요, 개입하고 싶고. 말하자면 지원체계를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느냐, 원래 전체주의 나치나 이런 것들이 폭력, 군대 동원해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학문에 종사하는 분들을 동원해서 그럴 듯한 합리화를 내세워 가지고 전체주의 사회가 기반 구축해 가지고 등장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채롭고 다양화되고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게 바로 거기에서 요구되는 명제라고 생각되거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학문연구자들에 대한 공감대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매우 소홀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치열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하고요. 지금 학문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대한 위험성이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국회 심의에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

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동감합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두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두언 위원** 정두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육협의회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하고는 어떻습니까? 자주교류를 합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자주 민간적으로나 공적으로 합니다.

○**정두언 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대학에 비해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공적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부겸** 김정길 회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답변하세요.

○**정두언 위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보는데 거기 통계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문대학이 아무래도 산업인력 그리고 직업 교육에 더 치중하고 있잖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정두언 위원** 취업률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취업률이 85.3% 됩니다.

○**정두언 위원** 대학은 어떻습니까, 총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68%쯤 됩니다.

○**정두언 위원** 꼭 취업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청년실업이 중요한 문제고 또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또 전문대학으로 가는 사례도 언론에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문대학에 재정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 아십니까? 보통 비율이 대학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크게 보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저희가 대학교수가 고등교육계 전체에 비해서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85.2%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데 미안하지만…… 미안합니다. 사적인 유감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4년제 일반대학보다도 18%나 정규의 경우 높습니다. 취업률이요. 그런데 지금 문

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전문대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정규 대학의 큰 데에서도, 저희가 취업률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좀 죄송합니다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저희 전문대학에 와서 취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정책토론을 했더니 모그 발언하는 말씀이…… 이거 용서하십시오. “결혼을 하려면 4년제를 가야겠고 취업을 하려면 전문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표현을 하는 정도로 저희는 취업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체의 인력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의 비율이 몇대 몇 정도로 나냐 이거지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 대해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산은 지금 고등교육 예산이 3조 5000억이 됩니다. 3조 5000억 중에서 저희가 과거에 특성화 이런 건 1680억으로, 뭐 수치를 말할 수도 없었는데 작년도 청와대에서 1조 5억을 더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딱 게 1000억을 이 국회에서 뺐습니다. 따 가지고 전문대학하고 4년제 대학하고 나눈다고 그래서, 따기는 저희가 뺐는데, 4년제 대학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500억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저희가 7%입니다. 고등교육 3조 5000억 중에 7%, 25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도 그렇고 한 7년 동안 특성화 예산, 이런 지원 돈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이 정도로 예산이 열악하고 모든 대우라든가 자존심의 문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희망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 고급학력의 선호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각 기업체에서 급료를 지급하고 대우해 주는 것이 고등학교를 100으로 본다면 우리 전문대학은 105 정도밖에 대우를 안 해 주고 그다음에 4년제 일반대학은 150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애들이 상당히 자존심과 불평등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큼니다.

○정두언 위원 아니, 그렇게 취업률도 높고 전체적으로 학교 규모도 굉장히 큰데 정부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게 나가는, 배분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경제기획원도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 저거인데……

이번에 경제기획원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설명을 가서 하고 했더니. 그래서 국회에서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한꺼번에 욕심은 저희가 안 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요구하는 건, 재학생수가 28%입니다, 4년제 대학 중에서도. 28% 정도면 한 5000억은 해 줘야 되겠다, 그걸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시겠다는 거는 그냥 이유 없다 이거지요? 부당하다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로인데, 하여간 제가 나중에 분청 업무보고 때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체크해 볼 텐데요.

우리 총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잠깐만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국회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대학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따라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정년 저거하고 마지막에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문대학 현황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이나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대학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문대학 정책을 위해서 커미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대학 커미티에는 전문대학 교수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과거에 4년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해서 전문대학의 방향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게 원인일 수 있겠네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 그게 작년 말부터 저희가 장악을 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연구도 상부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TF팀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고 건의하는 이런 측면으로 돼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더 바라려고 하는데, 그 사항을 몰랐기 때



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정두언 위원 제가……

○위원장 김부겸 정두언 위원님, 그러면 보충발언 시간을 지금 쓰시겠어요?

○정두언 위원 잠깐 마무리만 할게요.

○위원장 김부겸 아니, 쓰시고 나중에 안 하면 됩니다.

○정두언 위원 제가 괜히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한 번 더, 제가 여러 차례 좀 따져 볼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좀 우리 회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전문대학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예산이 다른 OECD 평균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걸 가지고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같이 우리 회장님과 노력해서……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GDP의 1.1%를 고등교육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강국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겠다 한다면 이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지고는 어렵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제 대학도 그것 가지고는 어렵도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100대 대학 랭킹에 보면 겨우 서울대학 하나 낄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둘의 싸움이 아니라 같이 좀, 4년제 대학도 좀 많이 밀어 주시고 전문대학도 많이 밀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장 김부겸 정두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 최재성 위원입니다.

이중서 교원공제회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우리 교직원공제회 압수 수색했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중서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무슨 일로 한 거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중서 부산의 녹산

공단에 쓰레기매립장 운영하는 부산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당 대출을 했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얼마 투자하신 거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중서 550억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게 그 회사에 직접 투자한 겁니까, 아니면 펀드 통해서 한 겁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중서 KTB라는 펀드를 통해서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수익률은 얼마……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중서 지금 그 영업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부실한 상태로요, 지금 손실, 저희가 계획된 이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투자 당시의 판단 준거가 된 예상 수익률……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중서 예상 수익률은 저희가……

○최재성 위원 예상 수익률이나 약정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중서 13% 예상을 하고……

○최재성 위원 그 펀드 자체에서는 13%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중서 지금 사실 부산자원은 부도를 낸 상태입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리스크 테이킹은 그당시에 어떻게, 투자 당시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중서 그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한 650억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담보로 잡고, 박우식 사장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고 박우식 씨가 운영하는 스위스건설이라는 데서 또 연대보증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업권을, 안진회계법인에서나 KTB자산운용에서 영업권을 좋게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담보가 충분히 확보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지금 담보 가치가 됩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중서 지금도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다마는 다른 회계법인에다가 가치 산정을 다시

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성 위원** 그 해당 부지에 대한 담보는 지금 1순위는 아니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사학연금관리공단이 1순위고 저희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공시지가가 650억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그 당시 공시지가가 650억이었고요, 지금은 훨씬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94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두 기관이 투자한 제한 950억 정도 되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그래서 공시지가대로만 하면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최재성 위원** 스위스건설은 박우식이라는 ENG산업, 박우식 씨 개인 연대보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스위스산업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개인도 연대보증을 했고요, 스위스건설도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은 자산이 없고 스위스건설 땅을 저희가 230억을 또 이번에 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그게 최초로 예상했던 대로, 펀드가 제시한 13%의 수익률은 담보되지 않고 사업 상황은 부진하다 하더라도 원금을 회수하거나 혹은 또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제회 입장에서는 투자상의 불이익을 특별히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지금 우선 부산자원이 부도가 난 상태기 때문에 다른 사업주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리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 부산자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제회, 뭐 사학연금이야 여기 안 계시니까, 공제회가 합법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자신하실 수 있어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저도 그 담당 직원들을 불러다 몇 차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은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다, 사업성을 보고 투자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투자 자체에는 불법성은 없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최재성 위원** 그리고 내부 규정 어긴 거는 있어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내부 절차도 어긴 건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압수 수사했을 때 이 건 외에, 이 관련된 투자 건 외에 다른 어떤 거 압수 수색했었어요, 요 건만 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이번 압수 수색은 요 건에 한정돼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요 건에 한정해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공제회에서 투자한 전체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압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그건 없었습니다. 압수 수색은 이 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요 건에 한정돼서만 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최재성 위원** 공제회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최초 예상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과정에 내부 규정을 어겼느냐, 또 불법성이 있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테이킹은, 수익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했느냐……

이런 거 없이 하면, 보통 사기꾼들이 수익률은 높게 제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안 됐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제시를 못 하는데 이 경우는 리스크 테이킹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투자 원칙이나 방법을 잘 세우시기 바라구요.

지금 검찰이 성급하게 혹은 또 미리 예단하고 불법성이 없는 공제회나 사학연금을 압수 수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간에 회자돼서 투자금 회수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묻지마식 수사고, 나 몰라라식 수사고,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말고 식의 수사인데, 이걸로 특히 우리 공제회라든가 사학연금과 같은 데 이미지도 훼손되고 또 검찰에서는 아무 소득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책임 질 사람이 없는 무책임한 수사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소신과는 또 상관없는 겁니다. 불법성만 없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해서 잘 소명을 하시고, 앞으로 투자에서도 오히려 이런 게 위축돼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교육부 바라보고 이러면서, 특히 공제회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이 안 돼서 사실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업무하시는 데 위축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요, 그 점 염두에 뒀서 흔들림 없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중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최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전혁 위원님!

○**조전혁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병두 총장님께 좀 여쭙 보겠습니다.

대교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입시 관련 부분들이, 아까 신사협정이라고 그러셨지요? 신사협정이고, 사실은 제재할 수단이 신사협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그렇게 물으시면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대교협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 것은 그러한 경우에 대교협 회원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또 책무성을 망각했다고 그럴까요,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교협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데 대한 검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조전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수단이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현재로는 대교협 회원이 됨으로 해서 대교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구비 지원이랄까, 안 그러면 입시에 있어서 같이 공동보조를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교협 회원이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리빌리지(Privilege)를 못 받는다, 그런 것이 1차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봐서 좀 심한 경우에는 교육부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건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우리가 어떤 회원사에 대해서 제명을 함으로 해서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원이 됨으로써 갖고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모르지만 아직은 그만큼 그렇게 강한 제재 수단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대교협에서 보통 회원 학교들한테 강조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이 대부분 공익성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조전혁 위원** 그러면 공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제재한다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학자인데, 만약 공익성이 있다면 그 공익에 합당한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 사적인 주체로서 사익만 추구한다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제가 대교협을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교협에서 이번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어떻게 보면 입학사정관제도에서 128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입학 관련해 가지고 대교협이 아주 주무 기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조전혁 위원** 저는 사실은 이 사정관제도라든지 아니면 대학에 줄 수 있는 당근이, 정말 대학이 움직일 수 있게, 자율적 결정에 따를 수 있게 충분한 예산이 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증액을 크게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옛날처럼 무슨 행정제재를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익성이 있고 공익을 따를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안 따른다고 해 가지고 무슨 제재를 한다는 건 이거는 경제학의 원칙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저도 그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예산 증액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정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과위에 계시는 위원들께서도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예, 같이 노력하지요.

또 한 가지가 대교협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께서도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 필요조치 이런 것도 지금 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새 동덕여대 학내 분규 일어나고 있는 거 혹시 회장님

이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아주 자세하게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일반적으로 처장 등에 대한 보직 인사권은 총장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권한입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학교마다 좀 다르리라고 보는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총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일반적으로 정관에 물론 기록돼 있지만 총장이 인사를 하고 나면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 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이사장이 그렇게, 예컨대 처장 임명을 하고 하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사장의 직권 남용이 아닌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그러리라고 봅니다.

○**조전혁 위원**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사장이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혐의가 보이는데 혹시 대교협에서 한번 조사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저희가 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윤리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알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이종서 이사장님한테 좀 여쭙 보겠습니다.

사실 이 교직원공제회가 파산하면 국가에서 보장을 하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조전혁 위원** 만약 파산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사실은 교직원공제회 같은 경우 이 바쁜 시간에 국회에까지 와서 국정감사 받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교사하고 교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제조직이지 않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조전혁 위원** 좀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그런데 회원들이 정부 보장 조항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항을 삭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정감사까지 이렇게 와서 받고 할 그런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회의가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지금 현재 경영 상황으로 봐서는 정부에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조그만 조항 하나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그것은 제가 단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회원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조전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우여 위원** 인천 연수의 황우여 위원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으시고 또 하시는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제를 보니까 연구소를 하나 만드셨네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황우여 위원** 연구소를 만드신 것은 아무래도 독도 문제를 특화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과연 충분히 자료나 또 연구진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는 않았습시다. 저희가 특화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 독도에 대한 연구가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 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어디 한군데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독도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황우여 위원**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 각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를 조정하는 일도 같이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조정은 못 하고요, 연구가 중복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서로

맞춰 보고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 연구 영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신다는, 지금 조정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연구 영역은, 지금 국토해양부 산하에 2개의 해양 관계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독도 관련 연구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연구소로는 아까 학술진흥재단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남대학교의 독도연구소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기관들이 자기 분야에 맞게 연구를 서로 나눠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황우여 위원** 실질적인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협의에 의해서 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권한은 물론 없습니다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독도 영해 문제 대책팀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도연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도연구소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가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독도연구소가 지금 각 민간이나 여러 연구소의, 어떠한 부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조정 역할을 한다, 또 국무총리실과도 연관이 있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황우여 위원** 또 하나는 제1연구실, 제2연구실 이렇게 돼 있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일 관계, 한중 관계로 나누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동북아 역사를 연구하는 곳인데 동북아 역사가 한일 관계사와 한중 관계사로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명칭이고 다양한 것이 다시 또 분산이 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물론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몽골, 베트남 이 관계는 제2연구실에서 관리를……

○**황우여 위원** 한중 관계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거기서도 하고 동시에 전략기획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 이것을 한일 관계, 한중 관계로

해 놓으면 특정 국가에 대한 관계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어떻게 보면 상대국에서 표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연구도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또 한편에는 최근에 논의되는 간도 문제 같은, 기존의 동북공정과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또 충분한 연구를 사전에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이 분류가 어떻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에 고구려연구재단이 있었는데 고구려연구재단을 폐쇄하고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로 너무 학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비난하셨는데, 그런 분위기하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 보면 대상 영역이나 이런 것이 좀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돼야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전략연구소가 되면 오히려 또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저희의 무엇보다도 제1차적인 임무야 물론 연구지요. 그래서 연구에 기반 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누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피하려고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그래서 연구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 그러니까 제1연구실 제2연구실은 주로 연구하는 데고 이른바 교류홍보실이나 전략기획실이 정책이나, 어떤 정책적 접근을 하겠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황우여 위원** 그렇다면 제1·제2연구실과 독도연구소 이러한 데는 보다 좀, 우리 이사장님께서 학계의 이야기도 듣고 이러서 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원대하고 광범위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간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가는, 지금 발언도 하시고 연구도 해 놓으셔야지, 이것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다라는 데로 치부했다가는 이 불똥이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튀어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국감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이사장님의 그림이라고 그럴까, 이게 생긴 지 한 2년밖에 안 돼서 어떤 기본적인 말씀을 좀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한번 제

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고맙습니다. 간도 연구에 대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 간도 연구보다도 전반적인 연구 대상과 방법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황우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겸** 황우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徐相箕 委員** 대구 북구를 출신 서상기 위원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법안이 제출되면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또 국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질의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술진흥재단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학술진흥재단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저희 재단에서는 연구재단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연구재단 설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먼저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구재단, 처음에 나올 때 두 재단이 통합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새로운 연구재단이 필요하다는 데는 재단 내부에서 컨센서스를 같이했습니다.

○**徐相箕 委員** 상대가 되는 과학재단의 분위기는 혹시 전해 들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가끔 전해 들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처음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과히 친숙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委員** 알겠습니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아무래도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거기는 국제 업무만 하니까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의 통폐합이 다 마찬가지로겠지는 당위성이나 취지 같은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논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또 양 기관의 정서적인 문제 또 구성원들의 이질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큰 기관 합치고 장 숫자 줄이고 감사 숫자 줄이고 몇 가지 상당히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또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기대했던 당위성이나 효율 보다는 부작용 내지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또 부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연구소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우려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기관 통합의 논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기관 통합을 이야기할 때 제시하는 몇 가지 공통적인 것 그것 외에 특별히 눈에 띄게 꼭, 누가 들어도 이런 점에서 기관 통합은 불가피하구나, 만시지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실은 두 재단은 기관 통합 이전에 옛날부터도 통합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연구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두 기관의 연구비가 대학교수님들에게 주로 집중되는 연구비였기 때문에 대학교수님 입장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을 상대하는 것과 과학재단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과 지원에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강제로 합치는 것보다는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 왔던 것에 대한 현실화라고 보면 총론에서는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총론은 합의했으되 각론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문제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각론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시간을 갖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상민 위원께서 오늘 많이 가르쳐 주셨는

데 재단이 합쳐지는 주 대상자와 주 혜택자는 연구를 하는 연구자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해 본 것은 없지요? 그냥 그저 들리는 이야기들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용역을 준다든지 시스템 차원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스터디를 해 본 것은 없지요, 양 기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경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가을에 재단,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재단의 그림이 무엇이냐라는 정책연구를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연구 결과가 2월에 나와 있고요. 2월에 나와 있는 정책연구의 그림에도 합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재단 통합이 결정된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으로 재단이 통합되는 것이 괜찮고 과연 통합재단, 한국연구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미래나 비전은 무엇이 적당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로드맵까지의 정책연구 발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로드맵에 대한 발주를 앞두고 있어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아니요, 로드맵뿐만 아니고 디테일한 미션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최근에 업무 협의를 하면서 시급히 발주를 하자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다.

○徐相箕 委員 시간이 다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국감도 있고 또 법안 심의 과정도 있겠습니다라는, 여기에 통합시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게 있는데요, 이 내용도 그렇고 또 실제로 기관 통합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되기를 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냥 전반적으로 기관이 합치는 당위성 이런 아주 일반적인 것 외에 아주 심도 있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혜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원들도 상당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좀더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용역자료 같은 게 공개돼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예.

○徐相箕 委員 그게 지금 우리 사무실에 안 와 있지요? 와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다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래서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것도 전부 제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창 알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겸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진 위원 서울 노원구의 권영진 위원입니다.

여섯 기관을 상대로 짧은 시간 내에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여쭙 볼 게 다 있는데요,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여쭙기로 하고요.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조에 보면 이사장께서 동북아역사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교과부장관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권영진 위원 금년도 들어와서 몇 차례 보고를 하셨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대통령께 보고 드린 것은 한 번입니다.

○권영진 위원 어떤 보고였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독도 문제에 관해서……

○권영진 위원 독도 문제에 관련돼서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권영진 위원 7월 16일에 미 의회도서관에서 독도를 리앙쿠르트 바위섬으로 바꾸는 회의가 있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권영진 위원** 그와 관련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미리 이것을 알고 대통령께 보고하거나 한 사항은 없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미리 안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캐나다에 있는 김하나 씨가 알려 준 후에……

○**권영진 위원** 김하나 교수가 알려 줘서 알게 된 것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권영진 위원** 지금 동북아역사재단 인적 구성을 보면 열한 분의 파견공무원이 나와 있고 그중에는 외교통상부에서 두 분이나 와 계신데, 동북아역사재단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리 이것을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외국에 있는 교포 연구자가, 제보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아닙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공관에서 보고한 것 중에 저희와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도 같이……

○**권영진 위원** 그러면 미 의회도서관에서 이것을 리양쿠르트 섬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서 보고를 한 것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시간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됨과 거의 동시에 공관을 통해서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특히 동북공정이나 그리고 독도 문제, 동아시아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교과서 편성 부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독도하고 동북공정은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동아시아사……

○**권영진 위원** 동아시아사, 그렇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면 사실은 외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내외 네트워크구축사업 세부예산 내역에 국내 NGO를 지원하거나 행사 개최 비용이 대부분이고, 제가 보건대 공공 부분, 국가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열거나 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업무보고를 봐도 지금 결원율이 너무 높아요.

연구직만 봐도 지금 결원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동북아연구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보면 결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업무보고에 9월 중에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이번 주 중에 최종면접시험을 치를 생각입니다.

○**권영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각 부처마다 오버TO가 많은데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독도 문제, 동북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토 수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곳인데 이렇게 결원을 계속 연차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 역사 바로 잡기 그리고 국권 수호, 국토 수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게 국민들에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교과부가 잘못된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소홀히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결원율이 높은 것은 사실 연구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적절한 연구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고도 못 뽑는 경우들이 있고 한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독도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독도연구자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연구할 수 있는 박사과정생을 우리가 양성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아직 연구자가 없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는 저는 변명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없지는 않은데 아주 우수한 연구자를 저희가 채용할 만한 사람들이 드물어서 그런 것입니다.

○**권영진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그리고 손병두 회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입시업무와 입학사정관제도 이 부분들이 지금 대교협으로 넘어왔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권영진 위원** 이 업무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제 생각은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난맥상



은 궁극적으로는 대학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 내부조직을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사지원부에서 이것 관할하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권영진 위원** 재정비하거나 인력을 충원하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지난 7월에 사무총장이 새로 왔습니다.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그 업무조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아직 조정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발언 계속 써도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부겸** 조금 이따가 정회했다가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권영진 위원** 나온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자율로 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 자율이 만능이 아닙니다. 자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자율정책이라는 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손병두 회장님은 기업에 계셨던 경험도 있고 또 현재 총장이시고 하니까 교육정책이 특히 대입 관련 정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내부조직 부분들부터 잘 챙기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도 작년에 10개 대학에서 올해 30개 대학이 추가돼서 40개 대학으로 시범사업이 늘었지 않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권영진 위원** 입학사정관제도도 사실은 새롭게 도입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작년 한해 시범운영하고 하는 것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지금 작년 한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육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도 모셔 와서 세미나도 하고 또 대학별로는 대학별로 자매결연된 외국 대학의 사정관을 모셔다가 교육하고 이래서, 지금 초기가 돼서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영진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분들이 지금 1년 계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권영진 위원** 1년 계약제인데 아마 총장님으로 계시는 서강대 같은 경우도 5명 중 1명은 정규직이고 네 사람이 계약직이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맞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입학사정관들이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이직률도 높아서야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중요한 대학입시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으로 바로 뽑았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입학사정관으로서의 훈련되고 전문성을 가진 분을 찾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직으로 하면서 양성 훈련을 해서 정말 가능성 있고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진 위원** 물론 저도 처음 인력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초반기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부분들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회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학에서는 등록금이 작다 그리고 높게 책정되어야 된다고 하고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부터 등록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또 보면 각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예산을 쌓아 놓고 등록금만 올리려고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 당국들은 당국대로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회장님이 보시기에, 본 위원이 1인당 대학등록금과 교비책정내역을 공개를 하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대학 내부의 투명성을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알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등록금만 가지고 재정을 꾸려가기에 너무 열악하고 이것이 대학경쟁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OECD 평균 75%인데 우리는 25% 밖에 안 된다, 국가에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더 설득력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에 여러 가지 공시제도가 진행되면서 회계부분도 완전히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들도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학생들하고 등록금 협의를 하다 보면 우리는 우수한 학교로 가기 위해서 좋은 교수님도 모셔오고 좋은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등록금 올리는 게 이제는 거의 한계에 찼다고 봅니다. 지금 1000만 원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이상 우리가 어떻게 더 올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면 대폭적으로 정부지원을 외국처럼 해 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 대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의 근거랄까 정당성이랄까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위원** 본 위원이 법안을 낼 때 그런 공감대를 잘 모아서 입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권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권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여섯 단체장님과 또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전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조전혁 위원**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까 이종서 이사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거 좀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은행들도 예금 보장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런데 은행도 국정감사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걸 하나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전문대 같은 경우 전문대 기관장은 명칭이 다 학장으로 되어 있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

○**조전혁 위원** 그게 어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지금 고등교육법 14조인가 거기에 일반대학은 총장, 전문대학은 학장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미국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미국의 경우는 전부 프레지던트입니다.

○**조전혁 위원** 중국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중국의 경우는 교장으로 해서, 샤오짱으로 해서 전부 다 통일이 되어 있고……

○**조전혁 위원** 우리나라만 지금 학장·총장 이렇게 분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일본도 학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봐서 특이한 어떤 교육제도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의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이거 고쳐 달라고 건의를 제대로 못 하고 그동안에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씀 중에 다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규모라든가 질로 봐서 충분히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괜찮을까요? 남의 대학 이거……

(웃음)

사이버대학이라든가, 4년제 대학도 신학대학이라든가 또 무슨 방통대학원대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의 대학들에도 총장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교육대학도. 그러니까 그건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5000명, 8000명 보통 이렇게 되고 질적인 면에서

도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전혁 위원 그 정도 해 주시고……

지금 교육부 관계자 나와 계시지요?

혹시 이 명칭하고 관계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적자치 영역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다든지 무슨 학장 명칭을 쓰든지 총장 명칭을 쓰든지 아니면 대장 명칭을 쓰든지간에 그걸 왜 국가가 법으로 개입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학술연구정책실장 이걸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학술연구정책실장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 이걸우입니다.

그 명칭 관계는 저희들이 저번 달에 대학 자율화 조치 안을 구상할 때 그 명칭 관계도 총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내부 안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금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모아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조전혁 위원 대학교육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총장님들 클럽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전혀 자존심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적자유에 대한 것이 더 존중되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알아서 학장으로 부를 사람은 부르고 총장으로 부를 사람은 부르고 이렇게 그냥 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조 위원님이 아주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대학교육협의회의 손 회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력 사업 중에 대학교육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는 것 참 좋은 사업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계가, 사실은 고품질의 통계가 생산이 돼야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서 제대로 하는지를 잘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사후 평가, 성과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각 기관들을 보면 이 통계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발전 정도에 비하면.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일선에 있는 대학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앞장서겠다는 예산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제대로 돼야, 일선이 돼야 되는데 주무 부처에다 맡기면 사실 상당히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이왕 하시는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왕 대학교육의 리더들께서 모이신 협의회니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근본적으로 대학교육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여기도 계층이 좀 많이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대학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대학이 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여러 층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대학도 있고 또 지방에 그렇지 못하고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회장님께서 이왕 리드를 해 주시는 이참에, 좀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육협의회의 지도그룹들은 대체로 메이저, 잘 나가는 분들,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말씀들만 많이 나오고 반영되고 이렇게 해서 대학교육협의회 구성원들인 다른 대학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담아 주시고 반영을, 오히려 그쪽에 소홀히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대학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각별히 해 주시고요.

또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지만 국민 혈세로 꾸려 가는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를 나누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많이 몰리는 과와 아닌 과가 있는 만큼 기초학문, 기초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은 국립대의 국민 혈세로 떠안고 그렇지 않은 법학과나 경영학과 이런 것들은 사립대학에 넘기고 이렇게 하면 좀더 낫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데 지금 국립대의 경우도 여러 가지 재정 등등을 독립채산제로 옮기기 위해서 법인화를 당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의회에서도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지금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구성이 돼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도 아마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시각도 다르고, 국립대학도 서울대학과 나머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과 또 다르거든요, 이해관계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이저 대학 중심으로 논의를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쪽의 말씀들이 많이 참여토록, 반영되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리고 주력 사업의 내용을 봤더니 대학 입학에 있어서 선발, 학생들 선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교육이 본래, 학생들을 뽑는 그것은 수단일 뿐이고 근본적인 것은 학문 진흥과, 만일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인재육성, 젊은이들을 좀더 바람직한 사회인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에서 입학시험이니 뭐니 이런 데서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것이, 3불 정책에 대한 논란 등등 다 관련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적 좋은 애들 뽑아 갈까 이것에만 초점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좋은 애들 뽑아 가면 곧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좀 뒤떨어진, 조금 더 낮은 학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더 큰 인재로 키우는 그런 방안을 다양하게 말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본래 교육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어떠십

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현장에서 보면, 지금 정원 외에 여러 가지 특례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자제분들이라든지 또 가계가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뽑는데, 이제 와서 공부를 시키다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탈북자 학생을 53명이나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정교사 다 붙여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마는, 전체 학생은 아무래도 대학이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발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입학사정관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고 성적 외에 학생의 특기나 여러 가지 특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작년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서 이제 40개 대학으로 금년도에 늘었는데, 아까 권영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정관제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것도 보고 또 졸업해서 사회적응도도 보고 하려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 걸려야 이게 정착이 될 것 아닌가, 지금 선진국에서 정착된 것도 역사가 오래 걸려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그러나 또 우리 한국인 기질이 상당히 빨리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단축해 가지고 사정관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완전히 해소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많은 보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선동 위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김용덕 이사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독도 문제가 큰 현안이 돼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을 때 우리가 긴급현안질문도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를 따지는 그런 위원들이 안 계셔서 제가,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지난 10여 년 동안 각기 직·간접적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쪽은 독도를 빼앗기 위해서 투여한 예산을 한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 일본정부 예산 같은 것들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우리 외교부에서 파악한 바가 제대로 없고, 그래서 제가 일본대사관에까지 요청을 해서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뭐냐 하면, 일본 외무성 같은 경우에 2006년까지는 '영토문제 대책'이라는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2007년 이후부터는 '영토문제 해결 및 해양권익의 확보'라는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독도를 차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2008년 일본 외무성 예산인데 840억입니다. 일본 돈으로 8.4억 엔인데 우리 돈으로 840억이 영토문제 해결 및 해양권익 확보라는 항목 예산으로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정부의 외교부 예산, 행안부 예산, 국토해양부 예산 다 스크린 해 봤습니다만 제일 큰 게 국토해양부에 6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840억과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채 도달하지 못하는 정부예산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정부 공식 예산에서도 편차가 있고,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이유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해서, '영유권 공고화 사업' 항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항목이 마음에 조금 거슬리는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우선 정부예산 차원에서 그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니폰 파운데이션(Nippon Foundation) 그리고 재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이라고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국제교육정보연구센터 또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막대한 공적개발원조기금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독도 문제라든지 자기의 국토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과연 국가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각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용덕 이사장님께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영토 수호나 국권 수호 이런 차원에서 정신적 국방부장관이시더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통령을 만나셔서 이런 문제들, 국가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 달라, 우리

가 예산을 편성해야 그다음에 일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 문제를 대통령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나라 사랑하는 애기인데 한 2분 정도만 좀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예, 천천히 하세요.

○김선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하고 있고, 우리도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말씀을 올리고, 대통령을 꼭 만나셔서 이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재단이나 일본 교류기금 이런 등속의 여러 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동북아역사재단 차원에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반국가기관이나 민간기구 이것을 입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런 기관들을 우리 독도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좀 만드셔 가지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아까 그 발언 취지가 지금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까?

○김선동 위원 예산이 국가에서 제대로……

○위원장 김부겸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는 하지요?

○김선동 위원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일본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현황으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김부겸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보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

문대학의 위상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정길 회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전문대학 개설 학과 중에서 보건계를 비롯해 가지고 안경광학과라든가 또는 외식조리학과 등의 과는 4년제 대학이 많이 잠식해 들어오고 있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

○**박보환 위원** 그런데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규제를 좀 해소해서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을 하게 해 달라는 게 아마 협의회 의 요구사항이고 그 핵심이 수업연한 자율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연한 자율화가 될 경우에, 또 개설 학과도 많이 일치하고 이러면 전문대학의 차별성이 좀 모호해질 것 같은데 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차별성에 대한 강구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차별성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대학과 저희 전문대학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의 트랙을 연구 중심 대학과 직업교육 중심 대학 두 트랙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은 노벨상을 타기 위한 학문적인 측면으로 공부를 하고 저희는 산업 활성화라든가 경제 또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현장의 중견 또는 지도자로서의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해야겠다 그런 것인데,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보건계, 안경, 피부과, 애완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육성해 놓으면…… 미안합니다.

(웃음)

아주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이상하게 되네요.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4년제 대학은 또 나름대로 학생들이 모자라니까 ‘전문대학 이것 잘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2~3년제 전문대학 가는 것보다는 4년제 대학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게 잠식을 자꾸만 해 오니까 막 그냥 보이지 않는 투쟁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연한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에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 버리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도, 70년대에 보면 그때 이미 이쪽에서 공부하던 애가 정신 차려서 공부 잘하면 이리 보내고, 이쪽에서 공부하던 애가 ‘나는 잘했는데 이제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이리 보내고, 이렇게 탄력성 있는 것을 통해서 수업연한을 자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 하여금,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갈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는 의지력을, 창조력을 심어 주는데 우리는 제도권에 넣어 가지고, 교육부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도권에 넣어 가지고 그냥, 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전문대학 문제는 특이한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개혁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문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력자원이 최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인력자원에 대한 중점적인 전략이 지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독일에 제가 있을 때 독일에서 연 30만 명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도시가 하나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우리는 이것 한 번 더 하겠다’ 해 가지고 ‘어느 국가의 노동자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국민으로 받아들여서 국력을 키웠습니다.

나라에 국민이 없으면 지금 국가가 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인력자원에 대한 풍부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특히 그다음 순서로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이 산업현장에 나가서 일해야 경제력이라든가 국제경쟁력이 있지 그냥 말로만 떠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수업연한 같은 것도 자율화시켜서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큰 테두리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도의, 선진국의 면모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박보환 위원** 회장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박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겸** 박보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오.

○**丁英姬 委員**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또다시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카시마로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더욱더 노골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이 너무나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설립 경과를 보면 2008년 8월 14일에 독도연구소가 개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독도연구소 개소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계획된 사항인지 아니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이 노골화된 올해에 들어서 급하게 결정한 사항인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연구실이 사실 독도 관계를 연구하던 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독도 관계 연구가 좀 분산돼 있고 연구인력도 분산되고 예산도 낭비되는 것 같고 해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의사가 있다 하는 뜻을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날 일본에서 그 해설서에 독도를 고유영토로 명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전부터 이 해설서에 명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놓고 두 가지 플랜을 저희도 갖고 있었습니다.

해설서에 명기될 경우에는 독도연구소를 만들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도, 그 해설서에 독도가 명기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독도연구소 설립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아주 반갑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준비는 죽 되어 있었고 인력도 보완만 하면 되게 되어 있었고 예산도 사실상 저희가 금년 10%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절약한 예산을 이런 때 쓰기 위해서 교육부에 두고 있었던 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8월 14일로 잡은 것은 물론 조금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8월 14일로 독도연구소 개소일을 잡았던 것입니다.

○**丁英姬 委員** 그러니까 확실히 계획된 것은 아

니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저희로서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만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의지와 맞을 때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丁英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인 역사 문제에 대한 대응들이 이렇게 지금의 이런 사태를 불러왔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보고서 13쪽 봐 주세요.

일본의 독도분쟁화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 반박 및 내부적 준비 철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의 내부적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필요도 없고 가셔도 안 되는 것이 제 1 전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자꾸 국제적으로 선전을 할 때 마치고 한국이 가면 거기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국제적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판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죽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안 알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丁英姬 委員** 알겠습니다. 단 1%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예.

○**丁英姬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정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2쪽 외국교과서 분석 및 오류시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동의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김춘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중국 일본 등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동북아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문제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김춘진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우리나라가 10위권 경제대국인데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 교과서 서술내용은 외국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김춘진 위원** 중국이나 일본은 별도로 하더라도 유럽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인식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김춘진 위원** 어떻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과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림픽을 치르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그쪽 학자들을 데리고 오고 자료를 주면서 조금씩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영국 사회과(역사 및 지리) 교과서에 한국은 후진국 내지 개발도상국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주된 한국 관련 내용은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에 치중되어 있고 이것 이외에 한국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도 한국을 북한과 혼동하여 기술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한국을 리비아, 이라크와 같이 핵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화,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은 실정인데 아랍이나 아프리카 이런 아주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의 국가는 더욱더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당연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0주년을 맞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잘못된 것 또 개선된 것……

○**김춘진 위원**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다음 해외 한국학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김춘진 위원** 한국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졌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김춘진 위원** 해외에 개설된 한국학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개국에 몇 개인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관계되는 게 한……

○**김춘진 위원**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7개국에 171개의 한국학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폐쇄된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자료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학 폐쇄된 것?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춘진 위원**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영국 더럼대와 뉴캐슬대 등이 재정난을 이유로 한국학을 폐쇄했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대, 독일 튀빙겐대, 미국 워싱턴대, 메릴랜드대 등은 어떻게 보면 시한부 한국학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데 재정이 열악한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국학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하시겠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위원님 자금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노력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국학 가치창출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8년 정신문화원으로 출발해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400여 종의 연구결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한국학 인재들을 통해서 인문사회과학 발전에 초석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동북아연구재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 등과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쇠잔해 가는 명가에서 벗어나 한국학의 총 본산 또는 한국학의 세계적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국사편찬위원회와 뭐



가 다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를 간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차 얘기한 것처럼 동북공정과 독도 문제, 현재 영토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한국학연구원은 한국학대학원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그 모든 문제뿐 아니라 대학원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학생 87명을 포함해서 200명의 대학원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외 학생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지한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내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김춘진 위원님, 지금 요 논의를 계속하시려면 한 3분 더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춘진 위원** 아니, 아까 5분 더 준다고, 여기 간사님께서 5분 더 발언하라고 그래서 추가질의.....

○**위원장 김부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朴英娥 委員** 송파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늦은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폐기물 처리 업체 부산자원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거기로 돌아가서 2004년 당시 부산자원의 담보 액수가 200억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550억이라는 큰 자금을 대출해 주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거기서 2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토지를 그 업체에서 230억에 낙찰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200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당시의 토지 공시지가가 675억 원이었고요, 그 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우식 사장 개인과 박우식 사장이 운영하는 스위스개발이라는 데서 연대보증을 썼고 또 여기에 대한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담보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면 대출의 경우에 어떤 의사결정 구도를 가지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부산자원 대출의 경우에 관련된 회의와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하게 있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투자가 아니라 펀드에 들어가는 간접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회라든가 거칠 필요가 없는 투자였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대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록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그 운영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투자입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면 저희가 사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부산자원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대출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압수당하셔서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돌려받은 후에라도 본 위원에게 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교협 관계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께서 많은 위원들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8월 28일에 2010학년도,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의 고 2 학생에 대한 대입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의 기본적인 내용은 논술을 자율화하고 3불 정책을 유지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예, 맞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런데 정권 초에 우리 이명박 정부의 기본 교육에 대한, 특히 대학입시 부분의 자율화에 대한 로드맵에 의하면 2012년까지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조하에서 2012년까지 대학입시가 정상적으로 자율화될 수 있을지, 또 여기에 대한 지금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우려하는 점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번 2010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입학전형위원회 밑에 있는 실무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또 전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

는데 급격한 변화를 하면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상당히 충격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3불 정책도 유지를 하면서 다른 논술 가이드라인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자율화로 가는 그런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목표는 2012년에 입시에 관한 한 대학에 완전하게 자율을 맡기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2010년,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 또 뭔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대교협으로 입시가 넘어오고 난 뒤에, 이게 여러 가지 언론이나 학부모로부터 많은 반발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초 좋은 의도가 오히려 시작도 못 해 보고 훼손될까 봐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발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진흥재단 관계입니다.

주신 자료 17쪽에 의하면 누리사업 시행 전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특성화 분야 교육여건 개선 및 사업성과 가시화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업단 특성화 분야 학생 충원율 100% 달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큰 쪽지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방대학 구조조정 촉진, 즉 4년 동안 정원 감축이 1만 3124명이 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두 자료는 일견 상충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우재창** 특성화 분야는 누리사업이 지원되는 전공 분야에 대한 신입생 충원율이 100%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분야 말고 그 학교 전체가 약속한 교원 충원율과 학생 감소율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나 하면, 지방대학의 경우 교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생을 감원하면 교원 대비 학생 수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학에서 교원을 충원하느냐, 아니면 학생을 감원해서 교원 1인당 학생의 교육 여건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에 상충되어 보이는 하지만 맥락으로서는 같은 맥락으로서, 교수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의 비율로 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의견이 결정됩니다.

○**朴英娥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박영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표 위원** 대교협 회장님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업규모가 128억 원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개 학교에 입학사정관이 얼마나 육성이 되어 있나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작년에 10개 대학을 시작해서 올해 30개 대학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0개 대학이 금년도에 실시되는데 대개 한 대학에 한 5명……

○**김진표 위원** 40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아니, 그건 40개 대학이고 한 대학에 입학사정관을 한 5명 정도를……

○**김진표 위원** 제가 하버드대학에 가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버드대학에는 입학사정관이 제 기억에 한 200여 명이 있더라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맞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우리 대학들이 입학에 대한 자율권을 완전히 대학에 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옳은 얘기지요. 대학이 학생을 뽑는 건 자기들이 뽑아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이런 전문가를 양성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권을 주면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성적 0.1점, 뭐 1점 그 사이로 우수한 사람 뽑든가, 외교 자사고 이런 특목고생 서로 뽑아 가기 경쟁하든가, 안 그러면 소위 무슨 논술이나 대학별 고사를 해 가지고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외국의 입학사정관들하고 했더니 기가 막히다고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신도 아닌데 어떻게 대학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뽑아내느냐,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느냐, 그런 반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 세계에 대학별 고사를 봐 가지고 학생을 뽑는 나라가 일본에만 있고 없는데 일본도 없애고 있어요. 그런

데 우리 대학은 그걸 모르고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주호 의원이 있을 때 저하고 입학사정관제도를, 이 예산을 국회에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고 입학사정관을 빨리 양성해야 됩니다. 각 대학의 사정을 보면 입학처장을 누가 하느냐 하면 수학과 교수들이 대개 하는데 1년 내지 많아야 2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고등학교가 어떤 형편으로 수업을 하는지, 그리고 각 학교마다 학력이 어떻게, 이런 구성에 관한 인포메이션 축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외국의 대학들은 우리나라의 웬만한 고등학교까지 입학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관을 육성하는 제도를 저는 대교협이 우선 최우선 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입시 자율권을 완전히 100% 가져가야, 그래야 모든 게 정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아주 너무나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하버드대학, 역사가 오래된 대학에서 이렇게 축적되어서 200명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나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금 5명도 양성하는 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을 좀더 증액해 주시면 우리도 점점 점점 이 부분을 키워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하나 희망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정보가 대학에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는 이러한 고등학교의 공교육에 대한 정보가 학교에 공개되어서 와야 사정관은 그걸 보고 정말 이 학교가 제대로 학생을 가르치는가, 또 그 학생의 특질이 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고등학교 평가를 하려고 그래도 못 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같이……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가 되는 걸 보면 적절한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정책은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데 그것만 평가하면, 왜들 반대하느냐 하면 그것이 고등학교를 서열화해 가지고 모든 학교를, 그러니까 고교입시를 다시 부활하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거는 대교협하고 전국고등학교교장단협의회가 모여서 의논을 하면 충분한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올해 입학사정관 예산을 얼마를 내년 예산으로 계상했는지 누가 답변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황흥규**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입니다.

158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158억? 158억이면 몇 명이나 육성하는 건가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황흥규**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개 대학에 대해서.

○**김진표 위원** 우리가 입시에 쓰는 돈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입시 개발하고 이렇게 쓰는 돈이?

○**교육과학기술부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황흥규** 지금 대교협 차원에서 한 5억 원 정도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김진표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158억이 국회에서 넣어 준 금액, 그냥 자연 증가분만 넣은 것인데 정책 의지를 가지면…… 입학사정관이 제대로 육성, 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학도 고등학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현재의 시스템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김진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실 분 중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오늘 일과시간이 대충 끝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쓰셔도 좋은데 요점 위주로, 굳이 드릴 수 있는 5분을 다 쓰지 않고도 핵심적인 질문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 하시겠습니까? 내

일 대전 행사를 고려하셔서 짧게 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것만 짧게 묻겠습니다.

회장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

○이상민 위원 전문대에서도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실태 파악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전 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 자료나 현황 파악을 잘 다듬어서 생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

○이상민 위원 전문대학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갑자기 과가 생겼다가 2, 3년 있다 또 없어져요. 그러면 그 과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나 교수진들에 대한 것이 제대로 기획이나 이런 뒷 책임, 감당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세워졌지 않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문대학 나름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걸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체 역량이 건강성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날림이나 부실 이런 것이, 현장이 드러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무슨 자격증 취득과정에 있어서도 이것들이 몇 개월, 6개월 과정을 남설해서 모집해 가지고 학생들을, 과정도 부실하고 취득시켜 준 이후에도 제대로 안 하고, 사실 자격증을 하는 그런 과정의 학과를 설립하는 거는, 신설하는 건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량적 예측을 해서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

○이상민 위원 그런데 선전은 엄청나게 해요. 하면서 실제로는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그냥 자격증, 학교의 영리사업,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의심, 불신이 되는 여지도 많다는 점에서 전문대에서는 뒤돌아보시고 그런 데 대한 건강성을 뒷받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정보공시제도라는 것도 전문대도 적용 대상이 되나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 저희도 됩니다.

○이상민 위원 이런 부분, 실제로 취업할 수 있

는 현실적인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취업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밝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관 기업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걸 밝혀 줘야 되는데 그냥 어디 다른 데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다 취업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입시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쪽을 실제로 조사를 할 수만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의심이 돼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근자에 와서 전문대학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건의할 것도 있지만 우리 자정 노력을 하자, 그래 가지고 공학인증제를 저희가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공학인증제에 대해서 3년 동안 시범대학을 뒤 가지고 자정을 하도록 하고 또 사회 분야도 금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실이라든가 또 자격증 문제 이런 면에서 각종 통계가 정확치 않은 경우가 있다 하는 건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도 봐집니다.

그러나 전체 대학은 아니고 지방대학에서 살려고 살려고 하다가 살지 못해서 쫓겨나는 대학이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 전국을 네트워크화 해 가지고 지역회장, 또 시도 회장, 또 대학별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자정 노력 내지 발전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또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전문대가 하는 역할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매우 중요하고도, 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빨리 취업을 해야 될 학생들을 맡아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시는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역할을 더욱더 진흥을 잘 시켜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학위 종류도 준전문학사, 전문학사, 3년(준학사), 4년(학사), 이것도 물론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방향성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이렇

게 3년 과정, 2년 과정 이러면서 다른 4년제 대학과의 차별성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부실, 또 이런 미끼, 이견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우려도 좀 적지 않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지금 말씀하신 준전문학사 이런 거는 저희가 전체가 자율화되었을 때에 그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믿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차원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못지않게 노력을 해서 질과 모든 교육의 내용에서 향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 제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더 말씀하시는 바람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이상민 위원님, 시간을 충분히 쓰셨다고 생각되십니까?

고생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

○**朴英娥 委員** 안녕하십니까?

송과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관련입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2006년 4월부터 문화재보호계획을 발표하고 각국에 불법 유출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유출 문화재 구원 전문기금으로 정부재단, 국영기업, 국립박물관을 통해 문화재를 경매를 통해 사들이고도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조상들의 문화재를 사들인 것만 5만 점이 넘습니다.

이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 등 역사 왜곡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증명할 만한 고문서, 고지도 등을 많이 보존하고 발굴하였다더라면 대응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서와 고문서를 조사 수집한다고 하였는데 국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 밀반출되어 중국과 일본 등 고문서 책방에서 돌아다니는 한국 고전 자료도 수집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좋은 질문 감사합

니다.

저희가 고문서를 기본적으로 수집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자료가 1차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진표 위원님께서 지적한 버클리 의 아시아 컬렉션 같은 것은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우리와 비교 검토해서 지금 목록은 다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하면 대개 20% 내외의 것이 그쪽에 더 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마이크로필름을 한다든가 돈을 주고라도 해 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고문서에 관한 것이기 기타 고고학·유물에 관한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문광부 산하의 국립중앙박물관 등등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역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서에 관한 한은 국내든 해외든 최선을 다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관련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박영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셔서 일찍 끝내신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영희 위원님……

○**丁英姬 委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과 문겠습니다.

13쪽 위쪽을 보십시오.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대학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의 배제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학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또 어떤 기관으로부터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지금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심지어 논술 가이드라인까지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사학법 문제 그런 데서 오는, 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NGO 단체들로부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

나……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丁英姬 委員** 잘 알았습니다.

대학 교육의 활성화와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손병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진 위원** 김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실용주의를 앞세운 조직 개혁이나 기업 규제완화 등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 발전전략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중연으로 대표되는 한국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말씀은 혹 시간이 끝나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도서 구입비가 일반도서는 6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7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근무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비가 1년에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춘진 위원** 답변을 포함해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러니까 부족하다 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학 연구 진흥에 투자하는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몇 분의 1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약 10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다음에 중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중국의 경우는 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춘진 위원** 중국 전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북공정이다 뭐다 해서 자칫 잘못하면 외국 교과서에 일본·중국의 시각을 반영한 동북

아시아 역사가 쓰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배 원장님, 취임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한중연 예산이 턱없이 적다, 세계에서 한국학 수준을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지금 생각으로 예산 1000억 원 정도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김춘진 위원** ‘정부당국이나 국회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구걸이라도 할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김춘진 위원** 얼마나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구걸한다고 예산 주실 것 같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여기 계신 교육위원들이 더 노력해 주신다면……

○**김춘진 위원** 저는 구걸한다고 절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받으시려면 그에 따른 한국학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준비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민족문화 창달의 핵심이 되는 과제들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4월말에 부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큰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추진 못 한 것은 지나간 세월이고요, 한중연 원장이 됐으면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미 다 연구가 된 사람이 비전을 제시하고 내 임기 중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100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한국학을 제대로 바로 세우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래서 기대가 큼니다. 그 기대

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현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국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고맙습니다.

○**김춘진 위원** 다음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문대학으로 간다든가 일반대학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위원** 대부분 서열 중심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명문대학 위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성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전문대학에 다니다가 포기하거나 또 졸업 이후에 대학교에 다시 진학하거나 반대로 대학 졸업 후에 전문대학에 다시 진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한 후 폴리텍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호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교육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연도별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춘진 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를, 없으면 만들어서 주시고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예.

○**김춘진 위원** 제가 추정건대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낭비 아닙니까? 취업도 굉장히 늦게 하게 되고요. 국가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교협이나 교과부와 정책적으로 조율하고 또 연구과제 등을 진행하신 바가 계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

○**김춘진 위원** 대교협이나 교육과학부하고 협의해서 연구과제 등을 진행하신 바가 계시냐고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지금 저희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를 했으면 그것을 주시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아직 그것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그동안에 T/F팀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르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연구개발을 해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만들어서 자꾸 반영하고 지난번에 정책토론도 하고 연구학술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김춘진 위원님……

○**김춘진 위원** 여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연계 문제, 미국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거나 뚜렷하게 대학에 갈 의지가 없을 때는 2년 동안 그것을 한 다음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정길**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교협이나 교과부나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해야 좋은 답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위한 보충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꼭 확인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혹시 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 자격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협 회장님하고 전문대학협의회 회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보는 이 나라의 심각한 사교육 대책, 대학입시라든가 혹은 다양한 정책 변화로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마는 두 분께서 답변하실 시간도 없었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 때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다음에 그 나름대로, 중요한 고등교육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관한 입장들을 정리하셔서 다음 국정감사

때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여섯 분 기관장님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좋은 질문해 주시고 의견을 경청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입장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열심히 모금해서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0여 년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건립된 다음에 거의 수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름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겨우 겨우, 교육부와 재정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모두 수리하려면 270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50억씩만 해서 수리하면 되겠다 해서 올해 겨우 28억을 재정부에 올려놓고 긍정적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7명의 인원을 만들어서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열심히 해달라고 했으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명을 조금 더 이해하셔서 도와주시면 훌륭한 연구원으로 키워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다른 기관장님은 없으신 것 같으니깐 모두 다 국정감사 준비 잘하시고요. 방금 김정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전달하셔서 충분한 논쟁이 혹은 또 충분한 토론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박영아 위원님, 김춘진 위원님, 이군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산하단체 기관장을 비

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여러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직할시 대덕특구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권영길	권영진	김부겸	김선동
김세연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박보환	박영아	서상기	안민석
이군현	이상민	이철우	임해규
정두언	정영희	조진혁	최재성
황우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문강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실장	이	결	우
기초연구정책관	김	이	환
학술연구지원관	김	관	복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황	홍	규
학교정책국장	심	은	석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사무총장	조	환	복
운영기획실장	이	근	우
한국고직원공제회			
이사장	이	종	서
상임감사	정	낙	균
이사	연	창	만
이사	이	중	영
이사	조	홍	래
기획조정실장	박	성	수
경영지원부장	윤	병	운
금융사업부장	성	기	섭
회원업무부장	손	승	일
사업운영부장	단	성	기
개발사업부장	배	재	환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우	제	창
BNC사무처장	장	환	영
경영혁신단장	이	종	욱
기획예산팀장	한	상	덕
연구사업기획	최	연	수
조정팀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김	정	배
원장	정	순	우
한국학대학원장	김	병	선
기획처장	최	진	욱
장서각관장	김		현
한국학정보센터소장	한	도	현
한국학기획사업단장	정	기	두
사무국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	병	두
회장	박	종	렬
사무총장	신	동	진
고등교육연수원장	양	재	근
경영지원부장	김	동	관
대외협력부장	최	두	현
평가지원부장	이	호	섭
학사지원부장	이	영	호
정책연구부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	정	길
회장	박	승	태
사무총장	이	승	근
기획조정실장			

(2008. 7. 14 이한구·조전혁·안상수·정희수·이명수·정병국·배영식·이정현·김동성·조원진·박보환·정하균·김을동·최경환·이혜훈·강석호·신영수·김희철·김성태·김광림·심재철·정미경·백성운·정해걸·현기환·김정훈·신상진·강승규 의원 발의)  
9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8. 8. 27 한선교·조전혁·유기준·현기환·김정훈·홍정욱·김효재·이명규·서상기·김무성·이학재·정병국·정진섭 의원 발의)

8월 29일 회부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8. 9. 2 한선교·강성천·구본철·정영희·이정현·박선영·현기환·이인기·정양석·안홍준·박종희·이한성·이명수·신상진 의원 발의)

9월 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